

장로 핸드북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는 길

지은이: 루이스 태밍가(Louis M. Tamminga) 목사

역자: 김 재영 목사

감수: 장 익 목사, 박 동건 목사

목차

페이지 수

서문		5
제 1 부	성경시대에 등장하는 장로들	6
1	옛날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의 지도자들	6
2	신약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	7
제 2 부	잘 구비된 종	9
3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	9
4	장로 - 은사의 사람	11
5	지혜의 은사와 지혜의 실천	13
6	지식과 은사의 개발	15
7	지속적인 성경 의존	16
8	기도에 대한 헌신	17
9	장로의 시간 관리	18
10	장로로서 부적격자라는 느낌	19
11	교회에 대한 영적인 비전	20
제 3 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의 사역	21
12	구역 활동	22
13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파악	23
14	개인적 업무일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24
15	연약적 삶을 통한 영적 공동체의 형성	25
16	영성 개발 - 영적 확실성과 거룩함에 대한 추구	27
17	개혁주의 청지기관	29
18	세상 가운데서	31
19	가정 정기심방	33
20	독신교인 심방	38
21	환자 심방	40
22	연장자에 대한 사역	42
23	청소년들을 향한 사역	43
24	장애자에 대한 사역	45
25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역	46
26	동성 연애자 교인에 대한 사역	49
27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는 교인들에 대한 사역	51
28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역	53
29	상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역	54
30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역	56
31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역	57
32	후속조치의 중요성	58
33	만남의 기회 활용: 사역의 기회들	58

34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경계선들	59
제 4 부	당회와 위원회	61
35	협의회 (카운실) - 뛰어난 제도	62
36	교회헌법을 활용하라	63
37	협의회의 구조	64
38	협의회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 준비	66
39	교회조직의 책임성: 한 몸에 대한 충성	68
40	회의 진행	69
41	협의회 회원 선출	71
42	신중함과 기밀 유지	74
43	공동의회	76
44	신임 목사 청빙	78
45	교회 안의 감독자들	80
46	권징의 행사	82
47	직원자들에 대한 권징	86
48	상호 격려와 대인격적 책임성	89
49	목회자에 대한 지원	90
50	의사교환	92
51	비전확정, 계획, 목표설정, 프로그램 짜기	93
52	교회 스태프와의 관계	94
53	변화에 대한 대처	96
54	갈등 처리	97
55	예배의식에 대한 감독	100
56	성례집행에 대한 감독	102
57	설교에서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사용	105
58	선교와 전도의 도전	106
제 5 부	지역교회를 넘어서	110
59	노회의 일원	110
60	노회 시찰단의 환영	113
61	총회의 일원	114
62	전세계 교회의 일원	116
63	기독교 학교에 대한 지원	119
64	교회 밖 단체들과의 관계	120

결론: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기원하며..

서문

이 책은 장로들에 관한 책이며, 장로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장로로서 여러 장로들과 더불어서 수년 동안 일해왔던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방과 회의와 여행중의 대화, 워크숍, 세미나, 수련회 등등 다양한 기회들을 통하여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책장을 넘기면서 장로들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일종의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방법 이상의 것을 이 책에서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딤후 3:1)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 사람의 장로로서 선출되고 안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바울이 인정한 그 이상으로 더욱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핸드북이 이 고귀한 임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이 그 덕분에 더욱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특별한 직책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1 부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직책에 대한 간략한 성경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장로들의 직무들이 무엇이었는데를 살펴보고, 오늘날과 비슷한 점을 살펴 보게될 것입니다.

제 2 부는 여러분 자신, 즉 한 장로로 섬기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르심의 성격에 대해서 논하게 되며,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직무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은사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그 직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습성을 키울 수 있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제 3 부는 여러분께 맡겨진 교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 4 부는 회중을 섬기고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감독하는 당회와 협의회 (카운실)의 사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5 부는 교단 활동 범위를 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삶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으며, 장로로서 활동하면서 필요할 경우 어떤 장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제직회 모임에서나 장로들의 모임 혹은 새로 선출된 장로들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했는데, 그 가운데 특히 귀중한 자료는 <개혁 장로회 운영 교본> *The Manual of Christian Reformed Church Government*, 1994 Revised, by Richard R. De Ridder and Leonard J. Hofman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8)입니다. 다음에 나오게 될 총회의 권고와 결정 사항들에 대한 많은 언급들은 이 <운영 교본>에서 참고한 것입니다.

-루이스 태밍가(Louis M Tamminga),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에서

제 1 부

성경 시대에 등장하는 장로들

이 책의 제 1 부에서는 장로 직책의 기원들을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모두 장로들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그 초기 시절에 장로들의 지도자 적인 직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로들의 활동들 가운데서 몇 가지 예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유서 깊은 직무를 여러분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들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1 장

옛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의 지도자들

성경에서 장로들에 대한 언급이 맨 처음으로 나오는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민족으로서 애굽에 노예로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 - 가문과 족속들의 지도자들 - 을 두셨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시사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들의 지혜와 총명에 의지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오는 일을 협상하러 가기 전에 장로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출 4:29). 그 일이 거의 삼천 오백 년 전의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좋은 시절에 있어서나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두려움없이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여러 번 찾아갈 때마다 모세와 동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광야에서의 방랑 기간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세는 점점 더 장로들의 도움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다른 종류의 책임들을 지게 되었습니다.

-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무리들 가운데서, 몇 사람들을 뽑아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관리(개역 한글은,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임명하였습니다(출 18:24-25).
- 모세는 특별한 사명들을 감당하러 갈 때, 자기를 수행하도록 칠십 명의 장로들을 선발 하였습니다(출 24:1-11; 민 11:16).
- 장로들은 때때로 매우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서 정의를 판별하는 재판관들로 임명되었습니다(신 21:1-9). 그 후에 장로들은 성문에 앉아서 소송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수 20:4).
- 장로들은 예배 인도자들이었습니다(신 31:9).
- 장로들은 법을 시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신 27:1)
- 장로들은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신 25:7-10).
- 어떤 장로들은 죄 사함을 베풀어주는 의식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레 4:15).

혼란된 사사(士師) 시대 동안에, 장로들은 많은 백성들이 이성(性)과 보호와 안정을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장로들의 봉사가 가장 절실할 때에 성문에 장로들이 없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애 5:14). 예수님의 탄생 때, 장로들은 종교 사회에서 현저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만한 영적인 선견지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장로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아주 탁월하게, 때로는 실패하면서 그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감당하였던 영광스런 직책의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비록 그 동안 수많은 시대가 바뀌어 왔지만, 여러분은 옛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똑같이 바로 이 사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직무는 그 당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직무가 지금이라고 해서 결코 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장로들이 실패했었으며, 지금도 장로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장로들을 사용하셨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장로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장로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겼습니다. 오늘날의 장로들은 그 메시아가 메시아에 속한 사람들의 삶에서 찬양 받으실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제 2 장 신약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

기원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장로의 직책이 어떻게 제도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간단히 지역 교회들 가운데 장로들이 있었다는 언급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들을 세웠던 첫 교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기근이 있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은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로부터 구제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로들의 손에 전달해 주었습니다(행 11장).

곧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좋은 조직에 영감을 얻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행 14:23) 임명하였던 것 같습니다. 후에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딤후 1:5). 이러한 임명들은 한 가지 더 심오한 차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그 직책들이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종의 선물, 즉 은사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엡 4:11-16). 오늘날도 장로들은 자신들의 직책이 하나님의 임명으로 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책임

성경은 신약의 장로들에 의해서 행하여졌던 매우 광범위한 임무들을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언제나 문제들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장로들은 해결책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습니다(행 15:5-6).
- 장로들은 사도들을 도왔으며, 헌신과 사랑의 눈물로 사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신약 교회의 토대를 놓는 그들만의 독특한 업무를 감당하였습니다(행 20:37).
- 장로들은 은사를 받은 교회의 일꾼들을 특정한 업무들을 돌보는 직책에 임명하였습니다(딤후 4:14).
- 장로들은 교회들의 “일들을 지휘하였습니다”(딤후 5:17, 개역한글은 ‘잘 다스리는’).
- 장로들은 치유를 위하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약 5:14).
- 장로들은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딤후 5:17).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신자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열 두 차례나 언급함으로써 교회의 영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호칭들

“장로”라고 번역된 두 헬라어 단어들은 프레스뷰테로스(*presbuteros*)와 에피스코포스(*episcopos*)입니다. 프레스뷰테로스에서 “presbyte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혜를 얻은 나이든 연장자를 가리킵니다. 에피스코포스 즉 “감독”(bishop)은 하나님 백성의 감독자로서의 장로의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흔히 쓰이는 또 하나의 지칭은 “목자”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장로들에게 목자들이 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행 20:28).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벧전 5:2).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한 사람의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책임들과 업무들에 대해서는 이 책의 나머지를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 2 부

잘 구비된 종

제 2 부는 장로의 직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성격을 논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그 업무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은사들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솜씨를 키울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하게 될 것입니다.

제 3 장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

장로들은 비록 지교회의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되었지만,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들의 직책에 부르심을 받고 임명되는 것입니다. 북미주 개혁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안수식(임명식)의 예식사는 성삼위 일체의 세 위격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이 신적인 임명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부

“당신들을 이 성스러운 직책들로 부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께서 장로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자

“교회의 주인으로써 그가 지도자들을 임명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자들을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영접하기를 권합니다.”

성령

“.....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비시켜주십니다.....”

“내가 당신들 장로들에게 ‘당신들 자신과 성령이 그 위에 당신들을 감독자들로 세우신 양무리들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임명 예식사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부르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직책들에 부르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북미주 개혁 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함으로써, 이 부르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임자들은 회중에 의해서 선출되고 부르심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인정해야 한다”(Acts of Synod 1987, pp. 393-394).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무들을 감당할 때에, 거듭해서 여러분이 받은 명령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다는 이 사실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 임명에 신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온갖 종류의 새로운 은사들과 재능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인들도 여러분의 결정들에 항상 동의하고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들은 때때로 뒤엎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는 확신은 여러분 자신의 장로직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심들을 담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받은 임명이 여러분에게 투표해준 사람들과 여러분 사이만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일반 사회의 한 이사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투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어리석고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이라면 나보다도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터인데” 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하지는 마십시오. 이 맡겨진 일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명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책에 임명받았을 때, (혹은 안수 받을 때) 그 일을 맡은 사역자가 회중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이 직임자들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와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들은 참되며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관계들이 항상 건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힘든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회중은 장로의 직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러므로, 존중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 4 장

장로 - 은사의 사람

여러분에게는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솜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의회(council - 목회자, 장로, 안수 집사의 모임)는 그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인정해서 여러분을 그 직책에 천거하고 지명하였으며, 회중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중 역시도 여러분의 은사들을 인정하고 당신이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봉사해 주기를 위하여 여러분을 선출한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임자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장로들로서, 여러분은 서로 상호간에 보완하며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당회와 협의회는 여러분과 그 동료들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별적인 은사들을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장로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북미주 개혁 교회의 장로 및 안수 집사 안수 예식사는 모든 장로가 어느 정도는 소유해야 하는 몇 가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여러분이 자신을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들을 구주의 십자가에 가져다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운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알곡은 성숙의 계절이 다 지난 뒤에 결실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들도 믿음에 있어서 여러 철을 거쳐서 “철이 들어야” 하며,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철이 들어서 제 맛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로 견디어야 하며,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해서 신실함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시험과 유혹들을 극복해야 합니다(हे 13:6-8).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장로로서, 여러분은 인내 가운데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또 더불어서 그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들에 처해서도, 쉽게 화를 내거나 마음이 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외식하기 보다는 내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 기도는 모든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또한 장로들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시 109:4). 똑같은 의미에서, 북미주 개혁 장로 교회의 장로 및 안수 집사 임명 식사(式辭)는 장로들에게 기도의 사람들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만 개발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인내. 이 은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은사입니다. 인내는 행동을 취하되 당장 취하려는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과 부딪칩니다. 인내는 신뢰를 가지고서 기다려야 하는 천천히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인내(patience)라는 영어가 비롯된 라틴어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말입니까! 인내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겸손. 대부분의 기독교적인 미덕들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도 그러한 미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겸손(*humility*)이라는 단어는 “땅바닥에 대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겸손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인생에 치여서 쓰러진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접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은 리더십의 참된 정신입니다(마 20:26-28).

임명 식사는 또한 두 개의 다른 중요한 은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열심과 지속적인 경외심이라는 은사들입니다.

열심. 열심(*enthusiasm*)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에 내주하시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열심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직임자들인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경외심. 사전(辭典)은 경외(*awe*)가 어떤 장엄하고 숭고한 것에 의해 유발된 존경과 두려움과 놀라움의 혼합에서 비롯한다고 말합니다. 열심과 경외심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볼 때 느끼게 되는 감정들입니다. 여러분이 경외심을 모른다면,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보통의 것으로 처리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다른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갈 5:22-23; 딤후전 3:1-7; 딤후전 1:6-9; 벰전 5:1-4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장로 및 안수 집사 임명 식사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지혜로운 상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따로 한 장을 만들어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 5 장 지혜의 은사와 지혜의 실천

지혜는 다른 모든 은사들을 빛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습득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혜를 가져 보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그 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성장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그에 응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왕상 3:9-12). 사도 야고보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약 1:5). 그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 어여뻐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혜안(seeing)

“지혜”는 “보다”는 뜻의 라틴어인 비데레(*videre*)에서 왔습니다. 보는 것은 지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혜로운 장로서 여러분은 상황을 사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황들을 모든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상황을 명료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들의 진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들이 주변의 넓은 현실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들의 인과 관계들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들의 상호 작용들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는 일은 또 하나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자신을 진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이상들, 편견들, 소망들, 기억들, 경험들, 연약함들, 강점들, 흥미와 관심들, 걱정과 분노와 공포 등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이 맺는 인간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롭지 못한 장로는 무의식적으로 한 교인과 만나면서 어떤 개인적인 “울분”을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행함

여러분은 지혜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연습을 하도록 자신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지혜가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제안들입니다.

1. 서두르지 말라.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결정을 내리거나 조언을 하기에 앞서서 약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문제를 마음 속에 담아 두고서 잠을 청하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도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성한 조언이나 결정을 알려 주기 전에 며칠을 지내십시오.

2. 상황에 대하여 전체를 파악하라. 여러분이 과연 모든 사실들을 다 고려해 보았습니까?

그 사건들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파악해 나갈 때에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참된 의욕이 그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았습니까? 좋은 조언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동기들을 검사해 보았습니까? 자신을 그 상황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에 대해서 검사해 보십시오. 때때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솔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3. 독단적이 되지 말라. 계획과 조언은 함께 모아질 때 최상의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같은 직책에 있는 동료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들로부터 배우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만남들을 환영하시고 그 만남으로부터 성장하십시오.

4.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하루 종일 안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접어 두고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자신과 더불어서 따지고 주장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고, 노트를 하십시오. 그와 같은 순간에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관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코스는 아마도 지혜에 의해서 조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5.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하라. 교회 생활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은 생각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일깨우십시오. 교회 생활 가운데서 더 큰 목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의 활동으로서 여러분이 정해 놓았던 이상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적인 자원들을 이끌어 내어서 궁극적인 목표를 견지하십시오. 초점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장로가 지혜를 가지고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1)

주

1. 또한 다음의 책을 참고 바람. *Our World Belongs to God - A Contemporary Testimony*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86), sec. 37-39.

제 6 장 지식과 은사의 개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에는 상당한 시간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훈련을 받고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배정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은사를 늘리기 위한 기회들을 선용하십시오.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커다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식과 은사를 습득함으로써,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들입니다.

- 교회의 신앙 고백서들과 교회 헌법을 읽으십시오.
- 장로들의 컨퍼런스와 워크숍에 참석하십시오. 그러한 모임들은 여러분을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며, 여러분 개인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 만약 여러분이 새로 임명된 장로라면, 경험 있는 장로와 만날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는 매우 귀중합니다.
- 여러분의 협의회(council)가 여러분의 할 일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할 시간을 일정 상에 따로 시간을 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담임 목사가 주도해서 그와 같은 토론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연구는 모든 직임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주1)

주

1. 이 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유익한 교재로는 다음의 책이 있음. Neil de Koning, *Guiding the Faith Journey*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6), pp. 7-31.

제 7 장 지속적인 성경 의존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명백한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점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경 읽기는 장로들에게 두 가지의 보상을 해 줍니다. 장로 및 안수 집사 임명 예식은 첫 번째 보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돌보도록 여러분에게 부탁된 교인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끌어다 쓸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 예식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딤후 3:16).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무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관찰하는 대로 필요들과 도전들과 문제들과 갈등들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 읽기의 두 번째 유익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건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은 매우 힘이 듭니다. 한 사람의 장로라는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재금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터리는 정기적으로 재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소홀히 한다면, 마침내 “탈진”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를(Q.T.)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규 일과로 삼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나서 읽은 구절들에 대해서 잠깐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침묵의 시간으로 끝맺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임한 메시지를 반추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주1)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도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그룹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로서, 여러분은 성경 공부 소그룹에 합세하든지, 아니면 리더십의 은사를 활용해서 새로 성경 공부 소그룹을 시작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에 함께 한다면, 그 그룹은 분명 커다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

1. 또한 다음의 책을 참고 바람. *Our World Belongs to God*, sec. 34-36.

제 8 장 기도에 대한 헌신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빡빡한 스케줄에서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내십시오.

첫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바쁜 생활을 잘 처리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분을 새롭게 바꾸어 주며, 재충전시켜 주며, 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방에서 나올 때, 새로운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개인들과 가정들을 위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 직책의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명식사는 “직분자들은 기도와 더불어서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권면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기도들을 좀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구역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살피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기입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기적인 간격으로 그 명단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곧 그와 같은 방식의 기도가 여러분의 활동에서 값진 요소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기도 명단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지지부진하면서 미루어 놓는 습관과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 9 장 장로의 시간 관리

어떻게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일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처리 할 시간은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처치 곤란한 현실로 돌려 버리기 전에, 몇 가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치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천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물과 같이 시간은 관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 관리를 일종의 생활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 예입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섬겼었던 한 장로님이 그 계절에 자신이 자기 구역 식구들을 심방하지 못했노라고 내게 보고하기 위해서 내 사무실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가 너무나 바빴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장로님에게 자신이 생활하면서 어떤 계획이나 스케줄을 짜고서 살아가는 지를 물었습니다.

“꼭 어떤 계획이나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 장로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장로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장로님은 두 주에 한 번 하루 저녁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은 잠깐 생각해 보더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해 열 두 달 가운데에서 여덟 달 동안은 심방을 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덟 달 동안 열 여섯 번 저녁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마다 두 가정씩 심방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서른 두 가정을 심방 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군요.” 그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그게 꼭 제 구역 식구들의 가정 수입입니다.”

하지만 일정을 세우는 일은 싸움의 절반에만 해당합니다. 다음 단계들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들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목표들을 세우십시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스케줄을 따라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종이로 일년 계획표를 만들어서 교회 행사를 주간별로 월별로 표시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협의회와 당회와 위원회들의 모임들을 기입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심방하기를 원하는 저녁들을 표시하십시오. 미리 앞서서 선약을 해 놓기 바랍니다. 실천된 일과 이루어진 심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시하십시오.

이 과정을 배우자와 상의하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의 정도에 대한 부부 상호간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 기간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스케줄을 다시 점검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삶의 상황들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스케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수할 수 없는 임무들이 생겨날 경우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주저말고 알리십시오. 아마도 그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시간 중복과 차질들을 처리해야 할 때, 스케줄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스케줄이 있는 편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추적해서 다시 스케줄을 세울 수 있는 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이 바로 계획짜기의 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획과 스케줄 편성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10 장

장로로서 부적격자라는 느낌

모든 장로들은 때때로 부적격자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고통이나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시 126:5).

다음의 제안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 먼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장로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역을 감당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적절한 관심과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이해의 정신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대로 행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꺾아 내리지 마십시오.

- 비록 여러분의 사역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 헌법의 제 2 항에 따르면, 여러분의 직책은 존엄성과 명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엄성과 명예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은 정말 생생한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때때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경우 매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수(임명)를 받을 때 여러분의 양무리들이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임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니다. “[새로 임명된 장로들]을 계속해서 존경할 것이며,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특히 그들이 그들의 직책에 대해서 힘들어 할 때 격려하겠습니다.”

- 임명 식사(式辭)는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도자들을 임명하시며, 그의 성령은 그 지도자들을 구비시켜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복들은 흔히 가장 지속적이며 꾸준한 복들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상의하며 격려하며 감사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직분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가장 큰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48장을 보십시오).

제 11 장 교회에 대한 영적인 비전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화목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영적인 비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은 이 위대한 사도적 전통에 서서 이와 동일한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의 회중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살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서로간에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에게는 그 목적의 상당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화목의 사역은 여러분의 회중의 사역의 토대입니다. 여러분이 회중들을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은 그 비전을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전면에” 항상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교회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에 기여하게 됩니다.

임직 식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의] 지도 아래 여러분의 교회가 모든 영적 은혜와 공개적이며 부끄러움 없는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굳게 간직하십시오! 그 초점을 놓치지 말고 유지하십시오! (또한 51항을 보라.)

(아무도 가장 낮은 꼴찌로 여겨지고 싶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수건 하나와 대야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큰 자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정의해 주셨습니다. -작자 미상)

제 3 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의 사역

이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이 갖게 될 개인적인 접촉 활동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활동은 당회와 협의회(카운실)의 일원으로서의 여러분의 임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분야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은 한 사람의 당회원의 자격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당회와 협의회 활동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보살핌의 임무들과 당회 및 협의회 활동에 대한 참여 사이에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그 둘이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 총회의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는 장로들과 목사(들)의 회를 “당회”(consistory)라고 칭하며, 안수집사들, 장로들, 목사(들)의 회를 “협의회”(council)이라 칭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직회는 서리 집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CRC 교단의 헌법에 비추어 보면, 서리 집사들을 포함하는 모임은 한국 교회 특유의 것입니다. 또한 CRC 교단에는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집사회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지교회의 협의회(council)에는 서리집사들을 제외한 안수집사들만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식의 제직회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개혁 교단의 총회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한국 교회 문화적인 정서상 서리집사들을 임명하여 제직회를 운영코자 할 때는 교회의 내규를 잘 정리하여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의 제 4 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북미주 개혁 교단은 지교회의 당회가 아니라 지교회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회는 거의 심방을 중심으로 한 목회적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역할은 거의 심방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지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들과 행정적인 일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회 일에 대해서는 목회자 및 안수집사들과 더불어서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시행하고 처리하고 주관합니다.-역자 주)

제 12 장 구역활동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인들은 구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역 조직은 교인과 장로 모두에게 몇 가지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 구역씩을 맡게 되면, 그 구역에 제한된 수의 교인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장로로서의 여러분의 임기인 3년 기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 길에 그 교인들을 대동하고 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그 교인들을 친하게 알게 되고,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성장을 향한 고통과 싸움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한 구역을 담당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역에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접촉은 이전의 접촉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호 신뢰의 구축은 여러분의 활동을 위한 아주 커다란 필수 요건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두 사람의 장로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봉사하는 큰 구역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어떤 교회들은 한 장로가 담당하고 있는 좀 작은 구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팀의 일원이 되어서 봉사한다면, 여러분과 동료 장로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경우, 함께 풀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상대방 때문에 생겨나는 상호적인 책임성이 발전하게 됩니다. 한 구역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다면, 감독할 사람이 좀더 적어집니다. 구역 식구들을 더 잘 알 수 있으며, 구역 식구들을 다 돌아보는데도 더 적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회중들 가운데서, 안수 집사가 한 사람씩 각 구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려할만한 일입니다. 구역 장로와 구역 안수 집사가 각각 자기의 직분에 적합한 일을 감당한다는 상호 이해를 가지고서 한 팀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는 구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필요들과 기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함께 활동을 계획할 수도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함께 특별 심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는 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여러분의 교회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활동들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역 담당 간사를 임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장로와 안수 집사와 간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구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며 생산적인 결과들을 낳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교인들에게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룹들에서 열두 명 이하의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상호 관심, 상호 걱정들을 나눕니다. 구역의 장로들은 자기 구역에 속해 있는 이러한 소그룹들과 정기적으로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시간이 나는 대로 그 그룹들에 방문해야 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은 구역의 리더십 안으로 끌어들여질 수 있습니다.(주1)

주

1. 또한 다음 책들을 참고 바람. *Home Fellowship Groups*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및 *Guiding the Faith Journey*, pp. 53-58.

제 13 장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파악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의 영적인 축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사람들과 친숙해지고 그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있어서 삶은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그들의 눈길을 빼앗아가고 있는 고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경험들이 구역 식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처해 있는 특정한 문제들과 개인적인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여러분이 함께 기뻐해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면, 그러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맛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특히 연장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회중이 모여서 친교 활동을 벌일 때에, 각 사람에게 접촉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적인 발전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파악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장로로서 여러분의 신중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도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삶은 흥분과 호기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쪽에서 먼저 그들에게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신뢰감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꾸준히 그들이 형편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을 보인다면, (대개의 경우 일 대 일의 관계에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음) 그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올바른 관점은 올바른 봉사, 올바른 섬김을 향한 길을 열어 줍니다.

그리스도는 무리들을 적대적인 군중으로 보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떼로 보셨습니다(마 9:36). 예수님은 부랑자들을 희망 없는 케이스로 보지 않고 성부께서 환영하시는 자녀들로 보셨습니다(눅 15:11-32). 예수님은 외부인들을 중요치 않은 사람들로 보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셨습니다(눅 10:25-37). 예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넘어지는 몸으로 보지 않으시고, 자기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보셨으며(계 22:17), 세상의 소금처럼 쓸모 있는 것으로 보셨으며(마 5:13), 세상의 빛으로 보셨습니다(마 5:14).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관점을 소유할 때,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고전 2:16).

제 14 장 개인적 업무일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장르로서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해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장르 직책에 임명받자마자, 여러분의 개인적인 업무일지를 작성하십시오. 업무일지에 여러분의 구역의 모든 식구들의 주소와 전화 번호와 나이와 직업과 학교와 기술과 재능과 교회에서의 역할, 교회 밖에서의 역할 등등에 관한 모든 기본적인 정보를 다 기입해 놓으십시오. 몇 달 앞서서 구역원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들과 그 일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기록해 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구역원들에 대한 심방 날짜와 사항들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업무일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 현재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걱정과 관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서 진실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고 어떤 필요가 발생하게 될 때, 좀더 쉽게 여러분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한 사람의 장르로서, 나는 내 자신의 업무일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음을 봅니다.

존 B. : 해고당함. 3월 3일에 심방.

메어리 O. : 고등학교 졸업식 대표로 고별사를 함.

베스 K. : 사내 아기를 낳음. 존 아담스, 11월 2일.

버트 P. : 아이오와 대학으로 떠남.

거트 A. : 매너(Manor)에 있는 166호로 이전함.

제인 E. : 교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싶어 함. 4월 3일 위원회에 알려줌.

클라우드 VB. : 새 트럭을 삼.

폴 U. : 회사의 파트너가 됨.

헬렌과 피터 D. V. : 아기가 계속 산후열을 앓고 있음. 10월 10일에 전화.

존 B. : 취업 전망이 아직 흐림, 3월 30일에 전화.

데이빗과 샬리 L. : 50주년 결혼 기념일, 9월 13일에 심방.

팻과 존 C. : 부역에 화재. 7월 18일.

잭 T. : 캐나다에 계신 아버지가 소천. 6월 2일.

데브라 S. : 그녀가 운영하는 음악 학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함. 2월 11일.

나의 업무일지는 미루어진 심방이나 해야 할 전화에 대해서 나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록을 유지하는 일이 그다지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록 유지는 내가 목회자로서의 일을 전체적으로 다 조망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장르로서 여러분의 임기가 끝날 무렵이 다가오면, 다음에 여러분의 자리를 계승할 후임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업무일지를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비밀은 세심하게 생략하도록 하십시오.

제 15 장 언약적 삶을 통한 영적 공동체의 형성

여러분의 회중의 영적인 삶은 두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며, 서로간의 관계에서 자라납니다.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교인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언약 관계의 내용을 경험해 나갑니다.

(막 12:30-31).

이 두 가지의 언약적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여러분의 봉사의 특징이 되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간단한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 바탕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적 관점은 모든 신자들을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구역 식구들이 교회 회중 가운데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슈들이나 정책들을 놓고서 나누어질 경우 장로로서 여러분의 마음은 아픕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교회에서 의미있는 사역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와 같은 사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인용한 사도 바울의 말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 장로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세워주고 공동체와의 올바른 관계에 세워준다는 언약적 마음을 굳게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벧전 5:1-3).

(순전함과 존중과 사려 깊음 가운데서 관계를 가꾸어나가는 일은 재충전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주는 대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루의 바쁜 일상 가운데 재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개발은 또 하나의 차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은 “각 지체가 각자의 할 일을 할 때, 자라나고 사랑 가운데서 자체가 세워져 나간다”고 가르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영적인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보살피기 시작할 때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풍성하게 발전하고 있는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회 사역은 구성원이 구성원을 목양함으로써, 즉 구역 식구가 구역 식구를, 교인이 교인을 서로 보살피주고 돌보아 줌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보살피주고 보살핌을 받는 것이 교회 회중의 생활 방식이 됩니다.(주1)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씀으로써, 그와 같은 영적인 성장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찌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

거니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1, 14, 16-18). (여기에서 ‘진실함으로’라는 말은 ‘성실함’과 ‘신뢰’와 연결된 단어로써 둘 다 온전한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들이며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헌법 제 79 조 b항의 강조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당회는 사림 가운데서 사랑과 관대한 정신을 키워야 할 것이다.....”(주2)

서로를 복돋아 주는 관계들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1.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접촉함에 있어서, 각 사람이 서로서로 복돋아 주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별하십시오. 구역 식구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도록 도전하십시오.

다른 구역 식구가 아플 때 심방하도록 구역 식구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한 구역 식구에게 특별한 곤핍 중에 있는 다른 구역 식구를 도와주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과 안수 집사들과 목회자들은 이러한 조정을 하나감에 있어서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구역 안에 있는 소그룹 활동들에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바랍니다.

그 그룹들 가운데서 서로 돌볼 필요성이 있음을 소그룹 회원들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내용들을 얘기하고 또한 부탁으로 들어온 요청들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 주도록 도전하십시오.

3.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화 기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화 기도망을 통해서, 교인들은 서로의 필요들과 기쁨들과 힘든 일들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구역은 자체적인 전화 기도망을 형성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를 통한 기도망이 가동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장로인 여러분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들을 나누는 일은 친밀감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4. 흔히 교회들은 교회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 요청을 인쇄하여 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이러한 매개체들을 활용해서 구역 이외의 교인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5. 새로 회원이 된 교인들과 구도자들과 방문자들에게 특히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여타의 힘든 일들을 지고서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잘 보살피는 이들과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6.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복돋아 주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목회자에게 말하십시오. 이러한 종류의 영적인 개발에 대해서도 설교해 달라고 목회자에게 요청하십시오.(주3)

주

1. 또한 다음을 참고 바람. *Our World Belongs to God*, sec. 41.
2. 또한 다음 책을 참고 바람. *Motivating Members for Ministry*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3. 또한 다음의 책을 참고 바람. *Guiding the Faith Journey*, pp. 65-95.

제 16 장

영성 개발 - 영적 확실성과 거룩함에 대한 추구

여러분의 많은 구역 식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관심사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성가시게 끌어오르는 의심과 실패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주 많은 요구들과 압력들을 가지고서 다가옵니다. 구역 식구들은 기쁨을 표현하기를 원하지만, 종종 공허함과 슬픔을 느낍니다.

“경건” 혹은 “거룩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세베이아(*eusebeia*)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룩함을 신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열매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로 5:1-11; 요일 3: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실성(*certainty*)의 원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을 신뢰하고 거기에 기대어서 확실성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곧 실망과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경건의 패턴들을 배출해 낸 여러 운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립된 품행의 규약(혹은 관례)은 그 공동체에 속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에 충성을 표시하였으며, 그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반 이슈들에 대한 그 공동체의 입장들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과 자긍심과 특히 구원의 확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발전해 나가면서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귀에 못이 박히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확실하게 심어주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섬김의 삶이 생겨납니다. (일단 성경적인 믿음의 확신이 확립되고, 주관적인 의심이 해소되면, 신자들은 잘 준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영성 개발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종교 개혁의 위대한 신앙 고백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모인 소그룹 회원들과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의 32번째 주일(Lord's Day 32)을 읽고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2번째 주일은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곤경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맺음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또한 자신을 닮도록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위함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32번째 주일에는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물들의 성경적인 질서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선행들이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점을 이렇게 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거룩한 생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성 개발은 확고한 성경적 토대와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이 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홀로 혹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간을 따로 정해서 경건 서적들을 읽으며 수련회와 컨퍼런스들에 참석하여 영적인 양육을 받고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주1)

주

1. 영성 개발을 돕기 위해서 CRC 출판국이 간행한 자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Neil de Koning, *Guiding the Faith Journey*, 1996; Alvin J. Vander Griend, *Keys to a Praying Church*, 1996; 및 Don Postema, *Space for God*, 1983, 1997. 또한 다음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Ben Campbell Johnson, *Speaking of God*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pp. 11-30. 묵상의 시간을 위해서는 다음을 사용하십시오. *Today - The Family Altar* (Palos Height, Ill.: The Back to God Hour).

제 17 장 개혁주의 청지기 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향한 봉사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제공해 주시며, 나의 나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비전으로부터 청지기 정신이 비롯됩니다.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청지기 정신이란 어떻게 실천으로 나타나는가?

마케도니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고후 8:1-4).

(CRC 제일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과 목회자가 돈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재정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알려드릴 말씀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의 재정 형편이 예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상되는 결손액은 수천 불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집사회의 보고가 따랐습니다. 집사회 서기가 해야 할 일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현금들이 사용되어야 할 곳이라고 집사들이 제안한 지역과 대상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집사들은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그 해의 현금 요청 액수가 모든 곳에서의 필요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높아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사실 슬픈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결손이 다 채워지기까지는 현금을 보내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집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구두쇠들이 아닙니다. 지난 달에 우리는 케이(Mrs. K) 부인의 눈 수술을 위해서 특별 현금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의 두 배를 모금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가 봉착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의 활발한 사역 프로그램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며, 이런 좋은 일들을 행하는 필수적인 사역들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일에, 한 집사가 교인들에게 교회가 처해 있는 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청지기 정신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 해 나중에 재정 위원회가 예산이 다 채워졌다고 보고했으며, 집사들은 자신들이 특수 사역들을 위해서 보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충분한 기금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청지기 정신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소유주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들과 야망들과 우리의 물질들과 우리의 많은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경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은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부 하나님이 결코 모자람 없이 제공해 주실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들을 위해서 계십니다. 그리하여 청지기들은 구제가 필요한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슬퍼하는 자들에게, 빵을 필요로 하는 굶주린 자들에게, 친구를 필요로 하는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할 때, 캠페인에 기금이 필요할 때,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청지기는 삶의 방식이며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장로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 먼저 여러분 자신의 생활에서 재정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일들을 지혜롭게 책임있게 관리하고 운영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관대하십시오. 청지기 직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종의 영적인 섬김으로 삼으십시오.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여러분이 영적인 용기와 자유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교인들과 구역 식구들을 그들의 청지기적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협의회에서 여러분의 목회자와 더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인들 가운데서 성경적인 청지기 직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확립하십시오. 청지기 직분은 “기금 모금”하는 일 이상의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는 주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인들이 주는 정도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정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동기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됩니다.(주1) (참조. 북미주 개혁 교단에서는 지교회의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과 권한을 협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 전체의 모임인 공동의회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조언과 의견을 제출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의결권은 목회자와 장로들과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지교회의 협의회에 있습니다. 협의회는 최종적인 의결권이 자신에게 있지만, 반드시 교인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의문이 있을 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

1. 또 다른 유익한 제안들을 보려면,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기 바람. Robert C. Heerspink, *Becoming a Firstfruits Congregation* (Grand Rapids, Mich.: Barnabas Foundation/CRC Publications/RCA Foundation, 1996).

제 18 장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회중(교인들)은 현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이 동력학(動學)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인들에게 사회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은 물질적인 보상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그리고 세상은 악과 운명에 대한 불길한 징조들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의 밀레니엄(천년)에서 다음 밀레니엄으로 넘어온 세상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년은 광야의 시대를 몰고 오겠습니까? 공중 도덕은 계속해서 부식되고 탐욕은 더욱더 강철같은 이상들이 되어가겠습니까?

복미주 개혁신교단의 현대판 신앙고백 중의 하나인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Our World Belongs to God*)의 제 3 항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외침들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로 무너지고,
혹은 고통으로 굳어져서,
삶과 소망과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승리를 꿈꾸면서,
자기들의 꿈들을 실현시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은 특히 두 가지 면에서 교회의 사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삶에 대한 깊은 열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권세들에게 선과 예절과 의를 옹호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4-17).”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다시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촛대 사이에 있는 제단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두 강도들 사이에 있는 십자가 위, 쓰레기가 쌓여있는 꼭대기에서, 저들이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써야 했던 다 문화적인 장소에서, 냉소자들이 상소리를 내뿜고, 도둑들이 저주를

백으며, 병사들이 내기를 하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주장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곳이며, 바로 그 자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으며,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 G. 맥클라우드(Mcleod)

둘째, 교회는 위로와 자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공포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회에서 안전과 보호의 피난처를 찾고 싶어합니다. 외로움에 짓눌려서,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에서 순수한 교제를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은 그와 같이 경이로운 도전에 응하여 자신을 준비하여 이 사역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1. 결코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역사상의 위대한 부흥들은 언제나 믿는 자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흥들은 종종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2. 직임자들은 지교회의 사역에 이중적인 초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초점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행복과 세상을 향한 전도입니다. 그와 같은 초점이 유지될 때, 전도와 자비의 실천(구제사업)과 정의의 추구가 우선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3. 도처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은 고난과 가난과 비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는 축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젊은이들이 국내나 국외의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서 집을 수리해주고 학교와 교회와 의료처소들을 건설해주는 소식을 읽습니다. 북미주 개혁 교회의 교인들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정의와 자비의 대의명분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건전한 증거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로로서, 그와 같은 중요한 사역들을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이 비전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주1)

주

1. 다음을 보십시오. *Our World Belongs to God*, sec. 17-18; 및 *Motivating Members for Ministry*.

제 19 장 가정 정기 심방

일년에 한 차례 대부분의 당회들이 교회의 거의 모든 가정들을 심방하는 대심방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 심방”은 사역이라기 보다는 간섭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 심방은 교회에 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의 하나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이 가정 심방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심방 때문에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은 옛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심방 하였습니다(행 20:20).

교회 헌법 제 65 조는 “매년 가정 심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매년 가정 심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가정 심방의 목적은 심방을 받는 가족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격려하고 강화시켜주고 확증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엡 3:14-21; 4:11-16).

여러분은 심방해서, 개인과 주님과 관계, 구원의 확실성, 확신의 토대, 매일 생활 가운데서의 신앙의 표현, 신앙의 습관들, 기독교적 사랑의 관계들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토론하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내신 분, 그리스도 자신의 대표로서 갑니다. 그러므로, 떨리는 마음과 두려움을 겹으로 밀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나 “인간관계의 기술”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가족들의 신앙을 좀더 확고하게 다져주기 위해서 복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무장하고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심방하는가?

다음은 부모들과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가정을 어떻게 심방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유의한 제안입니다. (독신자와 환자와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와, 연장자와, 상을 당한 자에 대한 심방은 각각 한 장씩을 할애하여 다루게 될 것입니다.)

1. 미리 심방 스케줄을 잘 짜십시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하루 저녁에 두 가정씩만을 심방하도록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관한 항목들을 여러분의 업무 일지에서 확인하고 살펴보십시오.

2. 현관의 벨을 누르기 전에, 이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심방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구 하십시오. 잠깐 멈추어서 자신을 검토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개인적인 걱정들과 우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번 심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관심과 걱정들이 그 심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 놓으십시오.

3. 자리에 앉았을 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심방의 주변 분위기를 관찰하십시오. 가구와 사진들과 신문들과 잡지들과 책들을 살펴보십시오. 아마도 그

러한 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가정의 관심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4. 집주인들이 여러분을 맞이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들의 상태(안녕)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들을 하려고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지내는지를 꼭 묻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는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5, 그 가정의 형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마련해 주심에 연결시키십시오. 그 가족들이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언급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설명과 격려의 말을 덧붙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심방을 위해서 선택해 둔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구절들은 각 형편에 맞는 구절들입니다. 그 구절들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은 구절에 대해서 물어보고 몇 가지 적용의 말씀을 덧붙이십시오.

심방에 활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롬 5:5-11, 롬 7:14-25, 롬 8:1-8, 엡 1:3-10, 엡 2:1-10

용서와 복

시 32:1-7, 시 51:1-13, 시 130, 사 40:1-8, 사 53:1-9, 눅 15:11-24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우신다

시 46, 시 91:1-8, 시 108, 시 121, 시 145:8-21, 사 40:9-17, 사 40:21-26,
마 6:25-34, 마 7:7-14, 눅 12:22-31, 엡 3:14-21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사 55:1-9, 눅 14:1-14, 요 3:11-15, 요 15:1-17, 롬 12:1-8, 롬 12:9-21, 고후 9:6-15,
엡 6:10-20, 빌 2:12-18, 골 3:1-17

하나님의 선한 목적

시 34:1-10, 시 62:5-8, 시 63:1-8, 눅 11:5-13, 요 14:15-21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쁨

엡 3:14-20, 마 5:1-11, 요 15:1-17, 고전 13, 빌 1:3-11, 빌 4:2-9, 골 1:9-14,
벧후 1:3-11, 요일 4:7-20

고난 중의 확신

시 23, 시 71:19-24, 시 77:1-15, 시 116, 시 124, 시 138, 롬 8:18-27, 롬 8:28-39,
고후 4:1-12

찬양

시 33:1-11, 시 33:12-22, 시 47, 시 67, 시 93, 시 96, 시 98, 시 99, 시 100,
시 103:1-8, 시 146, 시 147:1-11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함

시 1, 시 19:7-14, 롬 8:12-17, 롬 12:9-12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요 17:20-26, 고전 1:10-17, 고전 3:1-15, 고전 12:12-31, 엡 4:1-13

질병의 치유

왕하 5:1-15, 요 4:46-54, 요 5:1-19

슬픔 중의 위로

시 23, 사 43:1-5, 사 49:8-13, 사 61:1-3, 요 14:1-7, 롬 8:18-39, 고전 15:20-28,
고전 15:50-58, 고후 1:1-11, 살전 4:13-18, 살후 2:13-17, 히 4:14-16, 계 7:9-17,
계 21:1-4

6. 심방의 주요 목적은 그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형편과 상태에 대하여 서로 얘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가정의 식구들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 이들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체험하였는가?
-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험들을 서로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가?
- 이들은 어떤 식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가?
- 기도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가?
- 그들의 구속의 토대로서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주를 섬기고 있는가?

7. 섬세하게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가족의 기본적인 우려와 관심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처럼 보입니까?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부드럽게 탐문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존중하십시오. 만약 자세한 내막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어떤 문제들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면, 나중에 전화를 해도 좋다고 말해 주십시오.

8. 여러분이 대화를 이끌어나가도록 하십시오. 대화가 여러분의 심방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가정과 주님과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가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9. 여러분이 환대 받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심방은 한 시간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소한 대화를 적절히 잘라내고 여러분의 사명과 연결된 질문을 한다면, 한 시간 안에 기본적인 것을 거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가운데 힘든 문제가 부상할 경우, 다음 번 심방 스케줄을 잡으십시오.

10. 만약 심방을 시작했는데, 적절한 성경 구절을 찾지 못했었다면, 끝맺을 때에는 확실하게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정 심방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구절들의 목록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그 날 저녁의 대화에 맞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마련해 놓은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11. 대부분의 가정들은 기도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 기도에는 그 가정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할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 심방으로부터 얻은 중보 기도 내용도 포함시키십시오.

12. 그 심방에서 자녀들도 포함시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의 부모들과 심방 스케줄을 짜고 확인할 때에 자녀들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부모들의 간증을 자녀들이 듣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전략적으로 자녀들에게도 대화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이십시오.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시오.(주1)

다음은 피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 주장하지 마십시오.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방어적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확신을 표명하거나 기독교적 증언의 말을 하십시오.
-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 사소한 것은 피하십시오. 약간의 사적인 대화가 냉랭한 긴장을 깨뜨리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대화는 최소한으로 즐기십시오.
- 한 가지 주제에 고정되지 마십시오. 만약 큰 문제에 빠지게 되면, 다음 심방 계획을 잡으십시오.
- 여러분이 말한 다음에 침묵이 생겨나도 비록 그 침묵들이 불편하겠지만, 그때마다 그 침묵을 깨뜨리고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표현하십시오.
- “예”와 “아니오”로 끝나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식의 질문은 피하십시오.
- 중요한 것은 교회의 관행이나 정책이나 목회자에 대한 비판을 꼬집어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방의 초점은 이 가정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직회가 언제나 교회의 사역 프로그램들과 진행사항에 대한 교인들의 제안들과 질문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임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만약 훨씬 깊은 문제들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걱정거리들이 있다면, 함께 다음 심방을 계획하십시오.
-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들을 놓고서 토론을 벌이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교인들과 제직들이 현안들을 놓고서 대화할 수 있는 더 좋은 토론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 비록 서로 동의하지 않는 주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적절하다면 피하지 말고 함께 논의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항상 의식하십시오. 만약 신앙상의 문제들이 너무나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 문제를 당장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려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은 자신들의 문제들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음과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확인시켜 주는 일입니다.

(조엘은 얼마 전에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조엘은 처음으로 가정 심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첫 심방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몇 차례 장로로서 봉사해온 연장자 장로 한 분과 함께 팀을 이루었습니다.

조엘은 동료 장로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심방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심방에 대해서 예상치도 못했었습니다.” 조엘의 연장자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심방이 시작되자, 선배 장로님은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그의 직장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회사가 최근에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는데, 자기의 일자리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배 장로는 그 상황과 심정을 이해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버지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불확실한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어머니에게도 자기 남편을 격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길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조엘은 이 대화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서 경청하였습니다. 조엘은 이 부부와 선배 장로가 진정으로 순수하며 조금치도 인위성이 없이 주님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회 보고

여러분의 심방은 기본적으로 기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심방을 받은 구역 식구들은 자기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은 확실하게 그들과 그들의 장로인 여러분 사이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심방을 받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서의 어떤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거나 어떤 교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했다면, 그들의 우려를 협의회나 당회에 보고하기를 원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으십시오. 만약 그들이 동의한다면, 협의회나 당회에서 토의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그들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또한 제 41 장을 참조 바람.)

만약 심방이 잘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감사 제목으로 당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심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세한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당회에 중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우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정 심방 기간과 적절한 토의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장로들은 회중(교인들)의 영적인 건강을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참조. 북미주 개혁교회에서의 장로들은 거의 심방 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깊이 유의해야 합니다.)

주

1. 유익한 자료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Guiding the Faith Journey*, pp. 21-24, 59-63, 101-107.

제 20 장 독신 교인 심방

여러분의 구역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독신자이거나 이혼했거나 상처(喪妻)했거나 혹은 과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식구들을 심방하는 목적은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들을 심방할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앞장에 포함되어 있는 관찰들과 충고들이 독신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두 사람이 심방할 경우 독신자가 어떤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부드러운 태도로 접근하십시오.

2. 반대 성별의 독신자에게는 절대로 혼자서 심방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성이라 하여도 바깥 출입을 못하고 몸져누운 연장자에 대한 심방은 예외입니다.

3. 독신자들은 레스토랑이나 공공 장소에서 심방을 받는 것을 훨씬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서 서로 약속을 정하십시오.

4. 독신자들은 여러분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삶의 형편들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서 재빨리 반응해 주고, 내심으로 공감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5. 때때로 어떤 독신자의 경우, 여러분의 심방을 전혀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독신자가 기도 모임이나 그룹 미팅과 같은 다른 형태의 인격적인 상호 작용을 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인들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전통적인 가정 심방보다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목회적인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추세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교회들 가운데서 가정 심방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목회상의 보살핌이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한 구역의 장로로서, 여러분은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와 같은 여러 모임들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들 가운데서 홀부모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홀어미, 혹은 홀아비들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6. 독신자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외롭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래야 할 필요성을 감지했다면, 여러분의 심정적인 관심을 표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독신 구역 식구라고 해서 누구나 다 외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독신자에게 여러 층의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서 만족스런 교제를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독신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는 함께 즐거워 하십시오.

7. 전체 교인들도 독신자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 독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이등 급 교인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 교회가 독신주의를 강조해서 결혼에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결혼 상태를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지나치게 나갔다고 여겨집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들은 가정들에게 사역을 하듯이, 독신자들에게도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주1)

홀부모들

여러분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들은 여러분의 구역에 속하는 홀부모들입니다.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은 아주 어렵습니다. 혼자가 되어서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홀 어머니나 홀아버들은 보통 이상의 감당키 어려운 문제들과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간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충고들과 위로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후회와 분노와 버려짐의 감정들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입은 매우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혼자서 키워내야 하는 온갖 요구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우정을 쌓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의 문제들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일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휴식과 묵상의 순간들을 갖기도 힘이 듭니다.

장르로서 여러분의 스케줄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홀부모들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서 사역할 때, 집사들의 목회적이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에 꼭 명단을 올려놓기 바랍니다.

주

1. 또한 다음의 책을 보십시오. *Our World Belongs to God*, sec. 48. 심방했을 때,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려면, 앞장을 참조하십시오.

제 21 장 환자 심방

질병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질병은 불편함과 고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 가족, 결혼, 일터, 경제적인 형편 등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부차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질병과 고통은 흔히 모호한 죄책감과 패배감을 몰고 옵니다. 아픈 사람은 자주 두려움을 경험하며, 그 두려움은 사람을 경직시킵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질병과 아픔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면,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픈 사람들에게 장로들을 청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약 5:13-16). 장로들과 안수 집사 안수식의 예식사는 장로들에게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이라는 말은 “전체, 온전함”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상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에 있어서도 “온전함”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픈 환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역의 첫 번째 임무는 긍정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즉 이 아픈 환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온전한 한 멤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역입니다. 그 환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며, 신자의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한 자리를 누릴 가치가 있음을 긍정해 주는 사역입니다.

2. 그 환자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의학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환자가 여러분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기억하는 일입니다. 신중하고 자세하게 물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주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3. 여러분이 서둘러서 떠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해서 너무 오래 머물지도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장시간 지체하는 것보다는 짧은 심방을 선호합니다.

(나는 병원 심방을 나의 직업상으로 내가 전문적으로 행하는 일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심방들을 즐겼습니다. 나는 “내 구역 사람들”을 보고 나서, 병동을 돌면서 각 병상마다 잠깐씩 심방하였습니다. 내가 볼 때 병원들에서 보낸 시간들은 아주 잘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또한 관례적인 습관처럼 변해 버렸다는 것을 나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어린 딸이 맹장염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수술대에 실려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에 의사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술은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했으며, 말도 하지 못하고 걱정에서 사로잡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우리는 딸애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딸애는 두 뺨이 열로 인해서 홍조를 띠고서 딸의 마음은 있는 다른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두 눈을 꼭 감고서 누워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회복 기간 동안 내내 우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매번 방문 때마다 안도감과 사랑의 기억들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의 병원 심방은 이전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4. 질병이 장기화되면, 정기적으로 심방하기 바랍니다.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 심방과 카드를 보내는 등으로 다양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당 기간 동안 여러분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그 환자의 삶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그다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5. 질병은 신자의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픈 사람은 ‘이러한 시련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치유 받는 데 기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아픈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는가?’ ‘내가 아픈 데에는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는가?’ ‘이 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아픈 이 일에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신 것일까?’ 와 같은 많은 의문들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의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러한 영혼의 갈등들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기 바랍니다. 말하는 대신에 들어 주십시오. 거침없는 대답은 피하십시오. 다만 주저하지 말고 환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점을 다짐해 주십시오. 시편의 다음 구절들이 위로를 줄 것입니다. 23:4; 27:1, 13-14; 62:1, 7-8; 71:1-3; 77:10-15; 91:1-6; 116:1-7; 118:28-29; 121:1-2, 7-8. (그리고 앞의 제 19 장에서 제시된 성경 구절들을 참조하십시오.)

6.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에 계속해서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망을 개발하십시오. 혹시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심방해 달라고 부탁할 뜻이 있는지를 묻기 바랍니다.

7. 두 사람이 함께 심방을 할 때,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심방을 하는 장로로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얘기는 최소한으로 즐기십시오. 대체로 보아서, 자신이 아팠었거나 다른 누군가가 아팠었다는 얘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반드시 마지막에 간단한 기도로 끝내십시오. 의료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지 말고 그 환자가 잘 되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적절하다면, 힘과 용기와 인내와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환자에게 기도 부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 22 장 연장자에 대한 사역

지금 노인이 된 이들은 열심히 일했으며,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으며, 많은 기술들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스스로 불필요한 존재, 쓸모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많은 경우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서 연장자들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20-40 퍼센트의 교인들이 곧 연장자의 대열에 포함될 것입니다.

연장자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 연장자들은 정기적이며 간단한 심방을 좋아합니다. 한 당회는 4 개월을 한 주기로 해서 연장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심방하는 간단한 월별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 첫째 달: 장로 한 사람이 심방함.
- 둘째 달: 목회자가 심방함.
- 셋째 달: 교인으로 구성된 심방 팀의 일원이 심방함.
- 넷째 달: 집사 한 사람이 심방함.

2. 연로한 교인들도 종종 청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상의 문제들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불안정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흑암의 세력들의 공격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임직 예식사에 따라서 “나이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근심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인들을 초청하십시오.

3. 교회 활동에 노년층들을 참여시키십시오. 경험이 많은 이 노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여러 방면들을 찾아보십시오. 교회에서 배포하는 모든 인쇄물들이 노인들의 불편함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연장자들의 조언을 꼭 구하십시오.

4. 여러분의 교회의 연장자들이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으며,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잘 갖추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연장자들이 이와 같은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도록 해야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척해서는 안됩니다. 연장자들에게는 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자기의 동년배들이 많이 사라져 버린 세상,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인들이 변할 수도 없으며, 변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인들은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들에 값진 기여를 하는 참여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주1)

주

1. 북미주 개혁 교단의 국내 선교부는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진 유익한 연구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Report of the Committee on Senior Ministries” (*Acts of Synod 1985*, p. 702).

제 23 장 청소년들을 향한 사역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들과 십대들의 영적인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대층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활발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교회의 생명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보살핌은 목회적(인격적인 지도 중심)이어야 하며 동시에 프로그램적(틀을 갖춘 집단 활동 중심)이어야 합니다. 임직 예식사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적 품성의 본을 보이며, 젊은이들에게 분명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지도를 하라”고 권면 하고 있습니다.(주1)

최근에 한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의 하나는 기독교 가정과 세속 사회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그 가치들과 언어와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그 구성원들의 단합과 충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는 경쟁적인 가치들과 유혹적인 보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가족의 기대에 부합해야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응해야 하느냐 하는 이 딜레마와 싸워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유혹과 경험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치들의 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커다란 도전은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정과 교제를 촉진시켜주며, 도전적인 봉사 프로그램들을 채택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영적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 여러분의 당회와 협의회에서,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자녀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관심을 기울여 주도록 격려하십시오. 어린 자녀들과 십대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헌신적이라면, 그러한 사실이 교회의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 교회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십시오. 때때로 청소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청소년 중심의 이벤트들에 가끔씩 참석하십시오. 청소년 집회에 잠깐 씩 들려서 격려하십시오.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관심을 갖는 일을 청소년 담당 장로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3. 여러분 구역의 어린 자녀들과 십대들을 친숙하게 알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과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들(생일, 졸업 등등)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편안한 수준에서 그들과 접촉을 유지하십시오. 그들이 대화나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응하십시오. 신뢰의 관계가 발전하면, 그들이 여러분과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나중에 커서 여러분을 그들의 인생의 축복의 한 원천이었다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 교회 헌법 제 63 조는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가 모든 교회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여러분 교회의 많은 청소년들은 기꺼이 일을 하며, 능력 있는 일꾼들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반드시 그들을 참여시키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일 이상의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청소년들과 더불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청소년 담당 장로와 청소년 담당 교역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청소년들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도자들이 해서는 안됩니다. 장로들과 교역자들의 사역의 초점은 영적인 지도와 격려와 역할 분담이어야 합니다.(주2)

주

1.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에 관한 명확한 진술을 보려면, 교회 헌법 제 63조를 보십시오.
2. 다음의 책을 보십시오. *Guiding the Faith Journey*, pp. 105-107. 또한 다음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Wayne E. Oates, *A Practical Handbook for Ministry*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pp. 170-180. 또한 부가적인 조언과 사역 자료가 필요할 경우, 연합 칼빈주의 청소년회에 접촉하십시오. United Calvinist Youth, 1333 Alger SE, PO Box 7259, Grand Rapids, MI 49510 또 캐나다는 PO Box 1100, Norwich, ON N0J 1P0. 성경 봉독을 위해서는 제 19 장을 보십시오.

제 24 장 장애자에 대한 사역

장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고통스런 현실은 다른 교인들이 빈번하게 자기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은 그와 같은 편견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제안들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휴가 중에 한 쪽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장애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휠체어를 빌어서 아내가 나를 태우고 다니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매우 고통스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시관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저의 아내에게 안전수칙을 통보하는데 휠체어에 있는 저는 전혀 쳐다보지 않고 아내에게만 안전수칙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있는 저에게는 아무런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저의 머리 위에서 안내원들과 저의 아내가 결정하는 바가 곧 저에게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그대로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여러분에게 구역이 맡겨짐과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장애자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구역 식구들에게 그들의 장애에 관해서 물으십시오. 그러한 장애들이 그들의 생활에 어떤 불편과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어떤 고통과 마음의 언짢음과 심각한 제약과 외로움을 주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장애자는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이 힘든 짐을 지고 있는 다른 구역 식구들에게 제공하는 만큼의 동질의 사려 깊은 목회적 보살핌을 제공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Acts of Synod 1992, p. 622*)

2. 장애자들이 교회 생활에서 원하는 만큼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장애자는 교회의 사역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충분한 격려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의 은사와 기술들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3. 여러분의 교회당 건물은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지어진 교회입니까? 비록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장애자가 모든 활동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치가 있습니까? 청각 장애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 편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신 지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주1)

주

1. 프렌드십 시리즈 자료(Friendship Series curriculum)는 정신적인 장애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경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이 교회 생활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에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기 바랍니다. toll-free 1-800-333-8300 Friendship,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부가적인 상담과 자료를 위해서는 다음에 연락하십시오. CRC Committee for Disability Concerns,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또는 PO Box 5070, STN LCD1, Burlington, ON L7R 3Y8.

제 25 장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역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대의 발생은 가장 어려운 목회적 상황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상처들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종종 만성적인 행동 패턴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 심한 처벌은 일종의 학대가 됩니다. 성적 학대는 한 사람이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연령과 상황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수탈하는 것입니다. 성적 학대에는 예를 들어서, 야한 포즈로 발가벗은 어린아이의 사진을 찍는 일과 같은 비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해서 상대방의 가슴이나 허벅지나 엉덩이를 어루만지는 등등의 신체적인 접촉도 포함됩니다. 정서적인 학대(emotional abuse)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해치고 또는 상대방의 의존심을 요구하기 위해서 위협적이거나 조롱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 또한 만성적인 행동 패턴이 될 수 있으며, 장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학대들은 신체적인 상처가 아물든 다음에도 심지어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가 없었던 경우에도 오랫동안 정서적이며 영적인 피해를 줍니다.

학대 상황에서, 학대자는 학대받는 자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력은 (연령이나 몸집의 크기나 힘에서 연유된) 신체적인 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며, 어린자녀에게 굶기겠다고 위협하든지, 어린 자녀가 애지중지하는 장난감을 부수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처럼, 정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학대자가 그 희생자에 대한 영적인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학대자는 영적인 지위나 영적인 권위를 행사해서 피해자를 통제하고, 수탈하고 강요합니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이나 권위 형태를 오용할 경우, 그 결과는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간에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와 같은 배신은 그 희생자와 공격자 모두에게 깊은 영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학대”라는 말은 희생자가 어리거나 연장자이거나 연령에 불문하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인들끼리의 관계에서 앞서 표현한 학대 형태들은 때때로 (가정에서 일어날 경우) 가정 폭력,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어날 경우) 희롱(harassment,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학대의 개념은 교회의 상황에서 직권남용, 부적절한 행동, 불경건한 품행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개혁 장로회 운영 교본> *The Manual of Church Government*, art. 83).

칼빈 대학의 사회조사 연구소에서는 1989년에 학대에 대한 총회 연구 위원회를 위해서 학대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북미주 개혁 교회의 성인들의 12 퍼센트가 자신을 신체적인 학대와 무시의 희생자라고 밝히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조사는 CRC 성인들의 13 퍼센트가 자신을 성적 학대의 희생자라고 밝혔으며, 19 퍼센트가 자신을 정서적 학대의 희생자라고 밝히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15 퍼센트가 자신을 학대에 있어서 가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신체적이거나 성적이거나 정서적인 학대자들과 그 희생자들이 매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거친 현실을 외면할 길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대의 상황들 가운데서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 사실이 다르다는 점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희생자의 이야기를 믿으십시오. 학대는 은밀한 곳에서 번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희생자는 종종 위협을 당하거나 뇌물 공세를 당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라는 강압을 받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지 수년 동안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희생자가 한 장로에게 학대의 이야기를 밝힐 경우, 배신당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그 이야기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2. 그 문제에 대한 내사를 실시하지 마십시오. 장로의 역할은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후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할 경우만 정의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조사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희생자나 가해자나 혹은 그 둘 다에 대해서 사이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조사는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 지역 사회 가운데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장로들은 희생자나 가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학대에 관한 서적들과 비디오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할 수 있는 그 지역 사회의 전문적인 상담자들과 치료사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교단 관계자들에게 상담과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희생자들과 가해자들 모두에게 적절하며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보여주십시오. 희생자들에게 있어서는 서로간에 만남을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들을 세워주어서 여러분과 만날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의 상태를 존중해서, 학대에 대해서 세세하게 묻지 말도록 하십시오. 희생자가 여러분의 의도들에 대해서 오해 할 수 있는 형태의 허그(hugs, 껴안기)나 터치를 삼가하십시오. 가해자들과 함께 할 때에는, 그들이 그 학대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구실을 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생기기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종종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되살펴보거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가해자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가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납득시키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희생자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일을 피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만약 필요하다면, 가해자에게 그가 한 일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교회와 관련된 자료들과 교회의 구조를 활용하십시오. <개혁 장로회 운영 교본> (*The Manual of Church Government*)은 비행이나 불경건한 품행에 대한 주장들(allegations-증거가 아직은 불충분한 주장)이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제 78-83조를 보십시오). 집사들과 더불어서, 장로들은 그와 같은 고발들을 심리하고 재판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권한들을 행사하도록 요청을 받게 될 때, 이러

한 과정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교회 헌법에 덧붙여서, 1997년의 총회는 교회의 지도자를 상대로 학대에 대한 고발이 들어 올 경우 취해야 할 두 가지의 가이드라인들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주장된 희생자의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 의해서 학대당했다는 주장을 들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은 지역 경찰과 아동 보호 기관의 권위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사회들에 있어서, 학대에 대한 주장들을 보고하는 일은 법으로 요구되고 있음으로, 그 지역의 법률에 준해서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성인에 의한 학대 주장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은 독립적인 자문 및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주장들을 조사하고 고발자와 고발당한 자를 만나고 그들의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들을 만나고 그 보고서를 장로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장로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장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접어두고, 그 대신 이 훈련되고 전문적인 자문 조사 위원회가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서만 응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학대 주장들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들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총회록을 참조하십시오. *Acts of Synod 1997*, pp. 674-685)

목회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대 소송들은 대단히 감정적이며 아주 복잡적이며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사건들은 장로들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분노와 혼란과 두려움과 불신과 수치의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가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비슷한 감정과 강력한 부인과 분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명성에 특히 그 주장들과 자신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인식들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대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 이 분야에 대하여 훈련받은 기독교인 전문가들과 교단 관계자의 도움과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로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것처럼 어려운 사건들은 학대의 동역학(動學)에 대한 깨달음을 확대시켜주며, 그 이슈에 대하여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학대가 딱 한 번만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빈번하게 학대는 지속적인 패턴을 형성합니다. 만약 장로나 목회자가 노출된 학대의 증상에 대해 대결하고 가해자라고 주장된 사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희생자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어느 곳에선가 그 문제는 처음에 못지 않은 골치 아픈 문제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개별 교회들은 어린 아동에 의한 학대 고발 건에 활용할 아동 학대 예방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성인 희생자에 의한 학대 고발에 대처하는 정책들과 절차들도 미리 마련해 놓을 경우 교회에 훌륭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각 교회가 학대 대처 위원회를 만든다면, 지역 사회의 자원과의 연결점으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로, 그리고 희생자나 가해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하도록 훈련받은 그룹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필요할 경우 다음 기관과 상담하고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Office of Abuse Prevention,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학대에 대한 유익한 자료들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Too Close for Comfort: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the Reality of Abuse*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4) 및 *Preventing Child Abuse: A Guide for Churches*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7), 두 권 모두 다음의 저자가 집필했음. Beth A. Swagman. 또한 다음의 책을 참고바람. *A Survey of Abuse in the CRC* by Roger R. Rice and Ann W. Annis (Grand Rapids, Mich.: Calvin College Social Research Center, November 1991).

제 26 장

동성연애자 교인에 대한 사역

1973년 총회는 동성 연애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승인하고 동성연애자에 대한 목회적 보살핌에 대해서 다양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Acts of Synod 1973*, pp. 50-53; 609-633). 총회는 “동성애”(homosexuality)를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끌리는 개인적인 정체성의 상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계속해서 “동성애주의”는 노골적인 동성애 실천을 가리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총회는 “노골적인 동성애 실천으로서의 동성애주의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죄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Acts of Synod 1973*, pp. 51-52). 승인된 보고서는 “동성애는 질서에 어긋난 성적 상태로서 ... 그에 대해서 동성애자 자신의 책임만은 아니며, ...그 점 때문에 동성애자가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사람으로서 교회에 의해서 전심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목회적 권고는 다음과 같은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동성애자 이웃에 대한 사역은 제사장적인 동정과 관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동성애자 이웃을 향해서도 그의 용서의 기반으로, 그의 갱신의 권능으로서, 그리고 성화된 삶을 향한 그의 힘의 원천으로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2. 총회는 동성애를 일종의 장애(disorder - 무질서)라고 부르고, 동성애 성향을 가진 교인들이 특히 초기에 자신들의 힘이 닿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것을 교회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들 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용납과 지지를 해 줄 때 그들이 치료를 받겠다고 나설 수 있는 커다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노출되는 것과 그에 따른 축출이 두려워서 도움 받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성애적 성격에 따른 제약들을 받아

들여야 하며,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듯 똑같이 사역해야 합니다.

3. 받아들여줌은 커다란 요소입니다. 이성애(異性愛)를 하는 사람들도 동성애자들과 똑같은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로서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들과 회중 가운데서의 동등한 명예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4. 목회자들과 구역 담당 장로들은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사역해야 하며,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교인들의 부모들에 대해서도 사역을 해야 합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도 회중 가운데서 편견을 없애기에 필요한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5.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총회는 “교회들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적 교인들이 이성애적 교인들에게 기대되는 것과 동일한 봉사를 회중의 직분들과 기관들 가운데서 감당할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동료 일꾼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Acts of Synod 1973*, p., 52).

6. 현재 알려진 바로는 가정과 결혼 생활에서의 심리적인 이상(異狀)들이 아동에 대한 성적 도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홍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자녀들의 성적인 성숙 과정에서 장애(무질서)가 발견될 때, 주저하지 말고 기독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Acts of Synod 1973*, pp. 50-53).

제 27 장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교인들에 대한 사역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이 결혼(생활) 상담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공통적인 결혼 문제들을 논할 자격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으며, 어떤 유익한 충고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심각한 분열에 직면해 있음이 분명할 경우, 반드시 적합한 기독교 결혼생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제안하십시오.

기독교 상담자를 소개해 주었다고 해서 그 부부에 대한 여러분의 사역은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장로로서 여러분이 부름 받은 일들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부에게 사역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 결혼 생활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러한 부부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흔히 고립과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표현할 때, 그들에게 절실한 필요가 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짐해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경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부부가 그들의 결혼생활에 침투해 들어온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무가치하며 배신당했으며, 당혹스러우며 두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3. 한 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평을 유지하십시오. 어느 한 편에 대해서 탓하지 마십시오. 그 부부에게 그들 자신의 처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서로에 대해서 저지른 잘못과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연약함과 단점들은 일단 생각을 거쳐서 고백된 다음에는 용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잘못들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4. 그 부부에게 건설적인 토론과 대화의 패턴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기 주장만 펴거나 남의 잘못을 꼬집거나 비난하고 책망하는 식의 대화는 도움은 못되고 피해만 줄 것입니다. 각자에게 진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좀더 나은 결혼 생활과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감정을 섞지 않고 차례대로 설명하는데 동의하도록 제안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말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제안하십시오. 부부 각자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점들을 여러분이 요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5. 그 부부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각각 남편에게는 남자로, 아내에게는 여자로 한 사람씩을 멘토로 정하여 지도를 받는데 동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두 멘토들은 영적인

성숙과 개인적인 지혜를 보고서 선발되어야 합니다. 멘토들은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심이 있으며, 흔들림이 없고 지혜로운 안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그들이 내리는 중요한 모든 결정이나 취하는 단계마다 자신들의 멘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문을 구하겠다고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부와 멘토들과 여러분이 함께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진척이 느리고 협조가 아주 미미할 때, 여러분이 그 남편과 아내에게 혼외정사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진실을 들어야 하겠다고 집요하게 요구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대놓고서 묻고 탐색하십시오.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사정이 그러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이전의 노력들이 부적절하게 변해버린 형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전에 목회자가 개입하지 않았었다면, 이제는 목회자를 요청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혼외정사가 끝나고 죄가 진실하게 고백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진지하게 추구되지 않는다면, 회복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만약 회개가 전혀 없다면, 교회의 권징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그 부부가 결혼생활 치유 상담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를 원한다면, 목회적인 보살핌을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이 기정 사실화되면, 각 개인들이 환영하는 한 마찬가지로의 보살핌을 주어야 합니다.

결혼 문제의 역학은 복잡합니다. 만약 앞에 제시된 단계들을 따라서 노력하다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주저 말고 그 부부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십시오.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의 역할은 그들의 거친 길을 함께 가는 친구와 동반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제 28 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역

경제 생활은 어느 때보다도 예견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설적인 이윤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들에서는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 순환 과정에서 배제되고 크게 줄어든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되어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서 여러분 곁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는 해를 더하면서 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직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배척의 고통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정도(正道)는 없습니다. 직분자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역의 형태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쪽에서 먼저 그 사람들을 심방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거의 모든 경우 장로들이 팔목할만한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불운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떤 가능성들을 모색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재정 운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그 전문가들과 상담하도록 제안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집사회로부터 조언과 가능한 보조를 구해야 합니다. 좀더 넓게는, 이러한 경제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협의회 전체가 주목하도록 만드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전체 회중이 아플 것입니다.

또한 이 교인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목회적으로 보살피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격려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따로 고립되고 회중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제 29 장

상(喪)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역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사역에 몸담아 왔었지만, 나는 여전히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그다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슬픔을 위로하는 일에 훈련을 받지 않고서도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제안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 상을 당한 사람들은 먼저 감각의 마비 상태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손실을 현실적으로 즉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을 당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하며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곳곳한 힘과 용기에 대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마비 증상이 걷히고 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슬픔 혹은 비통함의 단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상을 당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부인과 나약함과 분노와 절망감을 느낍니다.

위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슬픔의 패턴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을 당한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을 건너뛰게 만들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역이 해결 지향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지는 해 줄 수 있겠지만, 슬픔을 경감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 방향에서 아주 좋은 의도로 하는 시도들조차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이나 친구의 죽음 때문에 생겨난 공백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슬픔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야 하는 질병과 동일시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상을 당한 뒤에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은 바꾸어 놓을 수 없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교인들로서 상을 당한 사람이 그들의 비통함을 “극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슬픔에 대한 문헌들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들과 체험들에 있어서도, 그 점은 아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슬픔을 시정해 주는 것을 여러분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런 길들을 우회(迂廻)하여 평안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척”을 이룹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공백들을 감당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곁에 있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2. 상을 당한 사람들은 만회될 수 없는 손실에 대처하고 그 손실에 따라 맞추어서 조정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장로로서 여러분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 상당할 정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형편을 확실하게 내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세세하게 나눔으로써, 상을 당한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들어주어, 힘을 얻게 하십시오.

3. 인내하십시오. 슬픔은 여러분 교회의 영성과 감정에 값진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의 수준에서조차도 교회 회중들의 표정에서 그 슬픔을 제거하려고 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슬픔의 현실을 지니고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더욱 즉시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전”이 왜 이리 더딜까를 염려하지 말고 슬픔을 당한 교인들과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고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은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위로하면서 곁에 있어준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4. 달력을 항상 확인하십시오. 그 사랑했던 사람의 사망 일자와 그의 생일을 기입해 놓으십시오. 그러한 날들은 슬픔의 고통이 강하게 밀려들어오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는 표시를 하십시오. 연중에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과 같은 때도 죽은 이가 가고 없음이 강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사망 2주년이 되는 날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제 그 죽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또한 사람들이 상을 당한 사람이 그들의 슬픔을 “끝내고” 그들의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해야 하는 때라고 여기고 있는 때입니다. 회상을 위해서 잠시 동안 들리십시오. 고마워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장로로서, 상을 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수적인 자료로는 다음의 책들이 있습니다. Wayne E. Oates, *A Practical Handbook for Minist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pp. 139-140 및 James R. Kok, *Waiting for Morning: Seeking God in Our Suffering*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7).

제 30 장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역

여러분이 임종의 자리를 많이 지키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은 임종하고 있는 사람과 살아 남아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역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1. 시한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포함해서 정확한 의료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상의 증거가 그 환자가 죽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면, 비록 장로로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환자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환자에게 직접 여러분이 말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가족들에게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의사들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죽어 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경청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죄책감과 후회를 표현할 때, 쉽게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감정은 어쩌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일 수도 있으며, 그 환자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해 구주를 통해서 오는 값없이 주어지는 완전한 용서의 말씀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의 과거는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 환자에게 그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고,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고 것처럼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초청하십시오.

3. 시한부 환자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위에 대해서 깊은 근심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들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상의와 설명을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읽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 23편, 시 37:25; 요 14:1-4; 요 17:13-18; 및 롬 8:1-8.)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지복(至福)의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시오. 고전 15:20-28, 50-58; 계 7:9-17; 및 계 21:1-4과 같은 구절들을 사용하십시오.

4. 그 가족들에게도 사역을 하십시오. 그 가족들 각 사람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고인이 된 사람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은 여러분이 재차 방문해줄 경우 매우 고마워 할 것입니다.

제 31 장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역

자살하려는 충동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번민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갑작스런 변화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우 심한 우울 증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편에서 먼저 유언을 작성해서 간직해 놓으려고 서두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지쳤어”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권고하십시오. 여러분은 목회자와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을 꿈꾸고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너는 네가 너의 목숨을 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주저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그 가족들이 볼 때, 그 당사자가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회피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이나 가족이 앞장서서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이 그 당사자에게서 나타나는 어떠한 징후에 대해서든지 결코 지체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현재 자살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용납과 용서와 도움과 해결과 새로운 가능성의 하나님이심을 확신시키십시오.

그러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접촉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장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번 여름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느냐?’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느냐?’ 등등의 질문을 던지고 함께 토론하십시오. 계속해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장래와 관련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 32 장 후속 조치의 중요성

후속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방시 해주는 말에 의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한 사람의 목자가 됨으로써 그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 행위만으로도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대표하며, 주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여러분의 직분 바로 그 자체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신자들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속적으로 보살펴 줄 때, 여러분의 첫 심방이 더욱 의미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 사람들은 여러분이 두 번째로 심방해 줄 때, 확인 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첫 심방이 그들에게 그랬었던 것만큼이나 여러분에게도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와 같은 후속 조치들은 또 한 번의 간단한 심방이나 전화나 간단한 카드를 보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심방을 한 다음에 감감 무소식일 경우, 여러분의 구역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이 그들의 힘든 형편들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만 취한다면, 들어간 시간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제 33 장 만남의 기회 활용: 사역의 기회들

물론 아무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었던 사역의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기회들”을 만날 때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일지나 참고 사항들을 검토한다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그들의 형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활동들이나 주위의 쇼핑 센터 등등에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를 하십시오.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있으면, 서로 얼마 동안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사람의 형편과 안위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격려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화 중에 얻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머리 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일지에 기록하십시오.

그와 같은 만남들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경우 여러분이 좀더 외향적이며 성취감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자기들을 보살펴 주고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지속적인 접촉은 여러분의 사역의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속한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이름들을 기억해 주고, 그들에게 손짓을 해주고, 그들에게 주목함으로써 그들이 특별하게 느끼도록 하십시오. 그 자녀들이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만남의 기회들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신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러한 만남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소홀히 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제 34 장 대인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경계선들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 상호간의 경계선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접촉할 때 한 사람의 직분자로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라는 의식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을 접촉할 때마다 항상 예의 있고 정중하게 접촉하십시오.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지 말되, 지나치게 가깝게 하거나 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감정적인 의존이나 낭만적인 느낌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장로로서의 여러분의 행동들 둘레에 경계선들을 설정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직분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권세와 위신의 주위에도 경계선을 하나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권세와 권위를 삼가서 사용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과 한 사람의 직분자로서의 “삶” 사이에도 경계를 그으십시오. 한 편을 희생하면서 다른 편 생활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둘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교회는 또한 그 자체적인 경계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계선들이 없다면, 교회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들과 위원회들과 지도자들은 그 나름대로 할당된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회와 제직회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고 행사를 주관할 때에, 반드시 “이러한 일들과 업무들이 어느 위원회나 어느 사람 담당인가?”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는 경계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여러분이 무엇이나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얘기하고 상의했던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켜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사람들과 나눈 정보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느낀다면, 먼저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반드시 구하십시오. 그와 같은 분별과 기밀유지에 대한 권고를 보려면, 제 42 장을 보십시오.

장로들, 집사들, 사역자들, 스태프진들, 및 교회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1)

1. 구역 식구들과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성별의 역학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적 지위는 각별한 유혹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들과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존중하되 신중하게 대하십시오.

2. 여러분 자신의 성별과 필요와 적절한 성취 방법들에 대해서 솔직함을 유지하며 항상 도덕적으로 적절하게 처신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성적인 부조화나 장애가 있을 경우 여러분의 목회 사역에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의 배우자의 협조 아래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3. 실질적으로 건강한 관계들을 유지하십시오. 만약 이성의 구역 식구를 심방한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가십시오. 저녁 늦은 시간보다는 일찍 심방하십시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 건물 안에서 심방을 갖는 것이 후미진 곳에서 갖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문은 닫아 놓는 것보다는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도 닫아두는 것보다는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동료나 배우자나 같은 또래의 사람에게 책임 있게 일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적절한 경계들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감정과 기대가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여러분의 영적이며 감정적이며 신체적인 안위를 잘 수호하십시오. 적극적이며 자비로운 태도로 일을 감당하십시오. 불만이나 원한이 있으면, 여러분이 유혹이나 자기 파멸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낙담이나 비판이나 자긍심의 손상 등등 여러분을 그 악한 자의 쉬운 목표물로 만드는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기도의 원천으로부터 그 자원을 끌어다 사용하십시오.

주

1. 다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Acts of Synod 1994*, pp. 193-194.

제 4 부 당회와 위원회

제 3 부에서는 장로들 각자가 자신의 구역 가운데서 그 구역원들에게 행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 4 부에서는 교회 생활의 조직적 측면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장로들이 당회로서와 협의회로서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교회 전체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가를 살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장로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구역원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보다 덜 영적이며 덜 인격적인 것 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동일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건강한 조직과 그에 맞는 정책들이 제자리를 잡을 때 가장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자면, “당회”는 장로들과 목회자(들)의 회(會)이며, “협의회”는 장로들, 목회자(들), 안수집사들로 구성됩니다.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실에서 협의회에 해당하는 총고들은 당회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흔히 여러 한국 교회에서의 협의체에 해당하는 제직회에는 서리 집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북미주 개혁신 교회에서는 각 지교회의 협의회 [council]에 안수집사들만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당회보다는 협의회의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CRC가 당회보다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교회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교회 협의회는 교회를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는 운영 협의체입니다-역자 주.)

제 35 장 협의회(카운실) - 뛰어난 제도

이제 여러분은 한 사람의 장로로 임명되어, 교회 협의회라는 놀라운 제도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어떠한 기관들도 이 협의회와 같은 기관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자체와 그 정치가 독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의회는 여러분의 교회 내의 통솔[운영] 기관(regulatory body)입니다. 그렇지만 협의회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은 지배함으로써가 아니라 감독함으로써, 아니 좀더 좋게 말하자면, 섬김으로써 자신들의 직분을 행사합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0:24-28; 요 13:1-17).

협의회는 교회의 회원들도 진정한 직분자들임을 인정합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신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와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출 19:6; 갈 6:2; 뱀전 2:5-10; 4:1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2 주일). 그러므로, 협의회는 교인 전체의 성숙한 판단을 존중하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교회 회원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민주정치를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협의회가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책임 있게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장로들과 안수 집사들과 목회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도록 임명되었지만, 그 “위신과 영예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교회 헌법, 제 2 조). 여러분의 협의회에서는 최고 경영자를 위한 자리는 결코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되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립니다.

교회와 다른 제도(기관)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들은 교회 헌법 제 1 조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북미주 개혁 교회(CRC)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참 해석으로서 개혁주의 신조들에 대한 교회의 전적인 순복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하며, 교회들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단정하며 질서 있게 처리되도록 하라(고전 14:40)는 사도의 분부를 받들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회 조직과 활동들을 정합니다.

여러분이 속하는 협의회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신자들의 통일체가 믿음과 수(數)에 있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 가운데 어떤 것은 관찰될 수도 있고 측정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대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의 “결과”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장로로서 실제로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제 36 장 교회 헌법을 활용하라

여러분의 교회의 틀은 성경적인 기준들에 따라서 세워진 것입니다. 협의회는 교회가 그 믿음과 실천과 조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는 또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몰랐었던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구체적인 형편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많은 정책과 관행들은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회 헌법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 교회 헌법은 교단과 그에 속해 있는 개 교회들이 풍성한 혜택을 입어왔고 시간을 통해서 검증 받아온 귀중한 문서입니다. 개혁신교회의 헌법은 16 세기 유럽의 종교 개혁의 교회들에 의해서 작성되었던 교회 헌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교회 헌법은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 하여금 행하라고 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교회 정치에 핵심적인 사실들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교회 헌법은 또한 교회를 위한 부칙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칙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른 규정들입니다. 이와 같은 부칙들은 직접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주장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공통적인 일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필요들과 도전들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 헌법은 교회들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헌법을 규칙적으로 읽고 참조한다면, 커다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심화시켜줄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불협화음은 종종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절차상의 규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주1)

주

1. 교회 헌법(*Church Order and Rules for Synodical Procedure*)은 매년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CRC 출판부나 KMD 사무실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CRC Publications,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미국 내와 캐나다에서의 무료 전화는 1-800-333-8300, KMD 사무실은 562-804-2584.

제 37 장 협의회의 구조

과거 개혁 교단의 교회 협의회들은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서도 효율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목회자가 협의회의 의장으로 봉사하면서 매월 모임을 사회하였으며,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서기로 선출되어 회의 의사록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혹은 부회장이 필요할 경우,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회계 한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도 단 한 차례의 월례회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협의회들은 훨씬 다변화된 요구들과 필요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들은 조직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교회의 직분자들(officers - 여기서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말함)이 흔히 따로 집행 위원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이 위원회는 협의회가 모여서 처리해야 할 의사 일정을 준비하고, 의사 일정에 포함시킬 항목들을 검토 조사하며, 한 협의회 모임이 끝난 후부터 다음 모임이 열리기까지의 기간 동안 협의회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의무들을 수행하는 등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체 협의회에 봉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집행위원회는 “당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협의회들은 또한 다양한 교회 교인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봉사 위원회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들의 일도 역시 현저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교회 업무의 크기에 따라 협의회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1980년 이래로, 협의회들은 직분자들이 한 세대 전의 직분자들에 비해서 재량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리더십에 대한 요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협의회들은 두 개의 넓은 분야로 자신들의 업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는 교회 교인들의 사역들을 전반적으로 후원해 주는 체계를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이며 다른 한 분야는 영적이며 목회적인 보살핌을 제공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분리하고 있는 협의회들은 첫 번째 분야를 행정 협의회(administrative council)에, 그리고 두 번째 분야를 목회 협의회(pastoral council)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두 협의회들은 매달 모임을 갖고 있으며, 두 협의회가 함께 모이는 연합 협의회는 년중 네 차례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합 협의회는 주로 정책 결정과 검토를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장로들은 기밀을 지켜주어야 할 목회적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당회로서 모임을 갖습니다. 비록 교회 헌법이 이러한 식의 조정을 특별하게 재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정이 교회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총회는 협의회들에게 지교회의 필요들과 형편들에 따라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조직 개편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다음과 같이 일깨워주었습니다.

“성경이 교회의 특정한 사역들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한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이 특정 사역들이 그 성격상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의 특정 사역들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Acts of Synod 1973, p. 64).

교회들이 서로 배우면서 나갈 때에, 계속해서 조정과 개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주1) 이렇게 될 때, 협의회들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직분자들에게 책임을 할당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며, 다시 책임을 맡은 직분자들은 신속하게 교인들의 필요와 기회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들에 대한 성경의 가이드라인들에 부합하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러한 발전은 분명 교회에 커다란 유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보려면, 제 50 장을 참조하십시오.)

(개혁 교단에서 지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과 권한은 지교회의 협의회에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계를 임명하고 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재정 관리와 예산 집행을 책임지도록 하되,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집행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정 위원회는 언제나 지교회 협의회 산하에 있는 부속기관입니다.)

주

1. 또한 다음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Dirk Hart, *New Design for Ministry Structure*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6).

제 38 장 협의회 회의를 위한 의사 일정 준비

협의회 모임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준비의 부족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들은 협의회 회원들 가운데서 한 팀을 구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을 모으고 의사 일정을 짜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 임무는 주로 집행 위원회에게 맡겨집니다. 의사 일정을 잘 준비하면, 회의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 일정은 이전 회의들과의 연속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구성된 팀은 앞서 열렸던 두 차례의 회의들의 회의록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팀은 그 다음에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들이 채워져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협의회 전체에 가능한 해결책이나 해소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완결되지 않은 업무”가 계속해서 지체될 경우 직분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미리 계획을 해서 회의에 임할 경우, 비전을 세우고, 미래를 내다 보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검토하고 기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적어도 회의 두 주전에 의제를 제출하므로써 그 팀이 어떤 의제가 의사 일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팀은 전체 협의회가 무슨 의제를 살피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결정자로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협의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들입니다.

- A 장로는 협의회 앞에서 발표하고 싶은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위원회 팀은 그 장로에게 먼저 그 장로의 우려와 관련된 문제들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 말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에 A 장로는 동의하였습니다.

- B 집사는 자신이 깊이 느끼고 있는 일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 팀은 그 집사에게 그 제안을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기 전에 먼저 동료 집사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 C 장로는 예배 순서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팀은 그에게 먼저 예배 위원회와 상의할 가능성이 없는지 그 장로와 더불어 토론하였습니다.

- D 장로는 한 가지 제안을 제출하였는데, 집행위원회 팀은 그 제안이 교회의 대외 전도 프로그램에 의미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팀은 그 제안을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기로 동의했지만, 먼저 그 장로에게 전도 위원회와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한 그 이상의 연구를 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에 대해서 D 장로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협의회는 그 문제를 다음 모임에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 E 집사는 한 가지 의문 사항을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집행위원회 팀은

협의회가 그 문제를 전년에 다루었음을 지적하고 그에게 그 회의록의 사본을 주었습니다. 그 집사는 만족했지만, 자신의 의문에 대해서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 팀은 그에 대해서 동의하고 의사 일정에 한 가지 공지 사항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 F 장로는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봉사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 팀은 그와 같은 봉사는 협의회의 허락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음을 설명해 주고, 그러한 봉사를 진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일종의 공지 사항으로 의사 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인 G 씨는 Society Act 아래서의 교회의 협력에 한 가지 변화를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 팀은 그 문제를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면서, G 씨에게 협의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경 설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G 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Society Act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국가가 종교 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법률을 가리킵니다.)

집행위원회 팀은 협의회 회의가 열리기 일주일 전 주일에 직분자들에게 의사 일정을 배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을 받은 직분자들은 모임에 앞서서 그 의제들을 세심하게 연구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 39 장

교회 조직의 책임성: 한 몸에 대한 충성

한 사람의 장로로서, 여러분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며, 동시에 직분자들의 회에 속하는 한 사람의 회원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과 상호 작용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함축적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여러분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협의회가 승인한 어떤 제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협의회가 승인한 이상 여러분은 그 안건에 대해서 지지해야 하며, 그 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교인들에게 해서는 안됩니다.

교회 헌법 제 29 조는 “협의회의 결정들은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헌법과 상충을 일으킨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결정된 것으로 그리고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의회가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 헌법에 상충되는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회(classis)나 나아가서, 총회에 상고(上告)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선택한다면, 동료 협의회 회원들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견해들을 토론할 때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십시오.

2. 여러분의 협의회는 여러분의 교회 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협의회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평판을 지키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비판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교인들에게 퍼뜨리지 말고 협의회에 가져와서 말을 하십시오.

3. 여러분의 협의회는 비밀리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협의회가 무엇을 결정 하였으며, 왜 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또한 토론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무엇을 어떻게 말했으며, 누구의 이름들이 언급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권리는 없습니다. 협의회는 교회 광고판에 협의회의 결정들을 제대로 보고해서, 사적인 기밀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회 모임들에서의 장로들의 목회 사역들에 있어서는 사적인 기밀들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Acts of Synod 1991, p. 723*).

4. 한 몸에 대한 충성은 폭넓은 함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인들 스스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교회의 좋은 명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협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거룩한 책무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제 40 장 회의 진행

오래 질질 끌고나서도 결론이 난 것은 별로 없는 그런 회의를 치룬 다음에 지치고 낙심되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직분자가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 이러한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고려한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회자(의장)는 제직회 회원들에게 이따금씩 협의회는 심의와 의결 모두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되새겨 줄 필요가 있습니다. 토의는 상정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때 제대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끝낸 뒤에 의결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결과를 낼 것입니다.

2. 사회자(의장)는 토의가 제멋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자유롭게 그러나 예의 있게 개입해서 토의가 그 회의에 상정된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3. 발언자들이 말을 반복하거나 앞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반복할 경우, 사회자(의장)는 주저말고 발언자들에게 자주 반복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주장을 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온유하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4. 협의회가 양분되어 상정된 이슈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 사회자(의장)는 그 문제를 다음 회의까지 연기하기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는 또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안건을 연구해서 자문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협의회 앞에 발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5. 끊임없는 토론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들은 한 가지 안건이 세심하게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나온 것인지, 그에 파생되는 결과들이 제대로 이해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건을 채택하여 실행하였을 때 얻게 될 혜택들이나 유익들이 과연 전망이 있는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협의회 지도자들은 안건들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철저히 조사 검토되도록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6. 중요한 안건을 놓고서 협의회가 양분되어 있는데, 그 안건에 대한 결정이 바로 그 회기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사회자(의장)는 토론을 위해서 과외의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회자는 간단한 정회를 제안하고, 그 정회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 때에 각 협의회 회원에게 최종적으로 한 마디 씩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발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결에 부치십시오.

협의회는 결정들이 만장일치나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질 때 제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긴 경우 교회 전체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협의회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의결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할 것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의 절차법들을 보면, 지난 회기에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재심의를 거쳐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주1)

7. 지루하게 끌면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회의에 내분이 있다는 증거일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자들은 그와 같은 분열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바람직하게는 제직수련회와 같은 비공식적인 일련의 모임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및 지교회 회중의 필요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와 조언을 해달라고 외부에서 조언자들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 60 장을 보십시오.)

8. 여러분의 협의회는 적절한 회의 절차와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적절한 회의 절차와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협의회에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회 절차 규칙들>(Rules for Synodical Procedure)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9. 협의회의 지도자들은 협의회 회원들간의 상호 인간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관계가 딱딱해지거나 깨어질 경우, 협의회의 회의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화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 회원들과 주저말고 토의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주2) (또한 제 48 장을 보십시오.)

주

1. 교회헌법 및 총회 절차 규칙들 (Church Order/ Rules for Synodical Procedure)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7), p. 94. 다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CRC Publications,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혹은 무료 전화, 1-800-333-8300. 개정판은 매번 총회가 끝난 후에 각 협의회에 배부됩니다.

2. 조언과 자료를 위해서는 CRC 총회 서기(General Secretary)나 사무국(the office of Pastor-Church Relations) 또는 KMD사무실(562-804-2424)에 연락하십시오. 처음 두 곳은 다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제 41 장 협의회 회원 선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한 사람의 장로라는 사실이 자그마한 기적이 아닙니까? 협의회가 고려하고 논의했었던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름이 전체 교인들에게 발표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주 동안 교인들이 여러분이 지명된 사실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여러분을 임명하고 여러분은 장로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협의회의 회원들을 총원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1. 선발 과정의 시작부터 교인들을 참여시키십시오. 여러분의 협의회에서 교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각 위원회들에게 추천을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헌법 제 4 조 b항은 이렇게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2. 후보 지명 과정의 일부로서,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여러 이름들이 논의”됩니다. 의장은 직분자들에게 솔직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직임을 맡을 수 있겠다고 고려되는 사람들이 그 직무에 적임자인가와 관련된 정보만을 언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보는 비난이나 고발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는 점이 상호 이해되어야 합니다.

3. 장로의 직무에 지명된 후보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3:1-7과 디도서 1:5-9절에서, 우리는 예상되는 후보들이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며, 성숙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며,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장로의 직무에 대한 후보자들은 그에 걸 맞는 청지기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모든 양떼들을 항상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들이 될 수 있어야”(행 20:28) 합니다. 그들은 그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딤후전 3:1). 비록 장로라고 해서 누구나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장로들이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딤후전 3:2).

4. 어느 시점에서 지명된 후보자들은 그들이 지명 받았음을 통보 받아야 합니까? 어떤 협의회들은 지명된 후보자들의 이름을 전 교인에게 발표하기에 앞서서 미리 예상되는 후보자들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장점은 봉사할 수 없거나 봉사하기를 꺼리는 후보자의 이름을 후보 발표 이전에 삭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절차의 단점은 그들의 이름이 아직 공식적으로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상당히 쉽게 거절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협의회들에서는 전체 후보 명단을 발표한 다음에, 지명된 후보들이 전교인 앞에서 사퇴를 하도록 그 후보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후보자들은 자기들이 그 직무를 맡아서 봉사할 수 없는 좋은 이유들을 대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현재 추세는 최종 명단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후보자들과 먼저 상의하는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후보자들의 위신을 좀더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5. “한 직무를 감당할 자를 소명하고 선출함에 있어서, 협의회는 통상 선출될 수의 최소한 배수를 지명하여 전 교인(공동의회)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협의회가 선출될 수의 최소한의 배수에 미달되는 지명자를 발표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교회 헌법, 제 4조 a).

6. 통상적으로 협의회는 하나의 명단을 공천할 것이고, 거기에서 전체 교인들은 그 명단들 가운데서 절반(이나 혹은 그 이상)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좀더 최근 들어서, 협의회들은 “동반 지명”(同伴指名, *double nominations*)으로 즉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여러 팀을 공천하여 공동의회가 그 가운데서 한 팀을 선출하도록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는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가진 두 교인들을 지명하면서, 그 두 사람을 짝으로 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의 경우 교인들이 널리 퍼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특정 구역별로 그 구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짝을 묶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에서 다양한 연령 집단들을 대표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비슷한 연령에 속하는 두 사람을 한 짝으로 묶어서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여서 선출 받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협의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둘씩 묶어서 지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ts of Synod 1983*을 참조하십시오.)

7. 만일 여러분의 협의회가 여성을 장로의 직분에 지명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전체 교인들과 노회와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성이 지명 받는다면, 여러분의 협의회에서 앞 항목에서 기술한대로 다른 사람과 짝을 맺어서 “복수 지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 교회 헌법은 전 교인에 의한 선출이 협의회 감독 아래서 정기 공동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무흠한(*in good standing*) 세례 교인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 4 조 c 항과 제 37 조를 보십시오.)

9.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협의회가 직임에 지명된 후보자들에 대한 프로필(신상 명세서)를 제공해서 그들이 전체 교인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제비뽑기로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것이 좋은 관행일까요? 1985년 총회는 그러한 생각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총회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제비뽑기의 사용은 신자의 직무가 지니고 있는 책임성을 제약합니다.” “선택의 순간 [그 교인]은 참여자라기 보다는 그저 구경꾼이 됩니다.” (*Acts of Synod 1985*, p. 714). 1989년 총회도 그 판단을 확증하였습니다(*Acts of Synod 1989*, p. 469).

어떤 교회들은 정규적인 선출 절차와 제비뽑기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교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두 배를 선출합니다. 그 다음에 제비뽑기가 실시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직무에 임명할 후보자들 가운데서 절반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배척 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11. 그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들의 이름은 통상적으로 임명식이 있기 두 주전에 전 교인들에

게 발표됩니다. 임명식은 적절한 양식을 사용해서 예배 의식 가운데서 치루어 집니다 (교회 헌법, 제 4 조 d 항). 총회는 처음으로 그 직책에 소명 받은 직분자에게 거행하는 “임명식”(ordination)과 그 이후에 한 임기를 또 하게 된 직분자들을 위한 “시무식”(installation)을 구분하는 양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Acts of Synod 1983*, p. 643).

12. 장로의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장로들은 삼 년의 임기 동안 봉사합니다. 그리고 대개 일 년이나 이 년의 휴무를 한 후에 다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년을 한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임기는 장로가 맡게 되는 구역 식구들을 알게 되는데, 거의 일 년의 세월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추어서 약간 짧다고 느껴집니다.

교회 헌법 제 25 조는 만약 “해당 교회의 사정들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면, 한 임기를 채우고 곧 바로 연이어서 다음 임기에도 봉사하도록 재선될 수 있다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선된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은 재임명될 것입니다.”

13. 제 4 조는 임명식이나 시무식의 한 부분으로서 손을 머리 위에 얹어서 안수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그들의 해당 직무들에 소명하였다는 표상으로서 이러한 제스처(gesture)를 덧붙일 수 있는 재량권을 허락하였습니다. “손을 얹는 의식은 성례는 아니지만, 교회가 각 사역들에 소명하고 임명함을 공적으로 확증한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용합니다” (*Acts of Synod 1973*, p. 64).

총회는 손을 얹는 안수 행위가 네 가지의 교회 직분들(목사, 장로, 안수집사, 복음전도자)에 대한 임명식이나 시무식에 적절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손을 얹는 실제 안수 행위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Acts of Synod 1983*, p. 643). 어떤 교회들은 안수집사와 전도자에게도 동일한 특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어떤 지교회의 협의회들은 지명 시기 이전에 직분자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다른 교회의 협의회에서는 새로 임명받은 직분자들에 대해서만 그러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훈련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주1)

주

1. 유익한 자료로는 *Acts of Synod 1973*, pp. 653-7160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Remkes Kooistra, *Straight Talk -- A Fresh Look at 1 Timothy*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6), pp. 49-55.

제 42 장 신중함과 기밀 유지

신중하게 사리를 분별하는 태도는 여러분에게 제 2의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믿고서 말한 모든 말에 대해서 제 3 자에게 말하거나 제 3 자와 의논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협의회는 전체 협의회 모임에서 직분자들이 구역원들의 세세한 사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장로들이 당회에서 심방한 가정들에 대해서 보고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확실히 그 구역원들의 영적인 안위를 위함이라는 점이 분명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짐으로써 자신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사실들을 발설하였다는 말을 그 구역원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실제로, 구역원들은 직분자들이 당회에서 자기들에게 보고할 때 어떤 식으로 보고하였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행한다면 기밀 유지는 잘 되어갈 것입니다. 목회 사역의 한 덕목으로서의 기밀 유지는 물론,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과 집사들에 대한 임직식의 예식사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믿고 얘기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키며”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진 모든 주의를 요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십시오.”

새로운 국면은 기밀 유지의 문제가 법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기에 사람들은 도움 주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느끼면 주저하지 않고서 소송을 할 것입니다(*Acts of Synod 1988*, p. 535).

총회는 협의회들을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들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사에게 특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 소통과 관련된 법령들과 법규들과 법들”(Statutes, Rules, and Laws Related to Privileged Communication to the Clergy)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1987년의 보고서는 총회 사무국(the office of General Secretary)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Acts of Synod 1991*, pp. 723과 769). 다음이 그 요약입니다.

1. 구역원들이 여러분을 신임하고서 말하는 모든 것은 그 무엇이든지 비밀을 지켜줘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뢰를 위반하지 않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a. 그 기밀 사항이 여러분에게나 그 말을 한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경우
- b. 여러분에게 말한 사람이 여러분이 관련된 적절한 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허락을 해줄 경우

만약 한 구역 식구가 여러분과 극비리 어려운 문제를 터놓고 얘기했는데, 책임자의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고 여러분이 느꼈다면, 여러분은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의논하되, 그 구역원의 신분을 비밀로 지키고 “가상적으로” 그 문제를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그 구역원에게 말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강력하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2. 노회에서 파견 나온 교회 시찰원들은 지교회의 직분자들이 기밀에 속하는 정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식적으로 인정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달 받게 된 기밀 유지성 정보에 관해서 양심의 문제로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 협의회는 교회적인 권징을 실시해야 할 사례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모든 사항들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공적으로 발표하는 경우에도, 위반한 교인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해서는 안됩니다. 오직 그 교인이 회개치 않았다고만 선언해야 합니다. 당회원들은 복잡하고 질질 끄는 징계 과정상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회는 또한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교인들은 훈계와 권징에 참여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해서, 교회의 회원 자격에 요구되는 모든 요구 사항들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Acts of Synod 1991, p. 723*). 다시 말해서, 교회들은 있을 수 있는 권징의 단계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 조건들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밥과 조앤

밥과 조앤이 서부 지역에서 살 때는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는 않았습다. 직업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결혼 생활에도 긴장이 계속되었고, 그들이 다녔던 교회에서도 많은 싸움을 벌여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동부로 이사하면서 새롭게 새출발 하겠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밥과 조앤의 교적부는 이송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목회자는 그 부부가 출석하게 된 새 교회에 있는 동료 목회자에게 의견서를 한 장 동봉하였습니다. 그 의견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그들을 특별히 목회적으로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명서를 전해 받은 교회의 목회자는 장로들 앞에서 그 의견서를 읽어 주었습니다.

한 두어 주가 흐른 뒤에, 그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밥과 조앤을 심방 하였습니다. 대화 중 그 장로는 그들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밥은 그 장로에게 어째서 자기들이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그가 느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장로는 똑같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전 교회 목회자의 의견서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밥과 조앤은 상처를 입었으며 실망했습니다. 그 심방은 곤경에 빠진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뒤이어서 그 장로와 목회자가 다시 심방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함으로써 약간 해소는 되었지만, 새로운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들의 소망과 기대는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교환에 실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와 같은 실수들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제 43 장 공동 의회

협의회들은 건강하게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전체 교인들과 친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협의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전체 교인들의 모임인 공동 의회를 통해서 교인들과의 접촉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중은 교회 생활의 전반적인 행정에 의미있게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 헌법 제 37 조는 협의회가 “주요 사안들에 관한 [회중의] 판단을 청”할 것과 “회중에 의해서 표현된 판단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헌법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는 권한은 교회의 통솔 기관으로서의 협의회에 있음”을 확 인함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 가운데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내려진 결정들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직분자들은 또한 교인의 자격은 신자의 직무에 참여하고 있는 성숙한 신자들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그러한 신자들의 판단은 운영 과정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교회 헌법이 세 개의 공식적인 교회 “회의들”(assemblies) 즉 협의회와 노회와 총회를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공동 의회는 그와 같은 공식 회의들(assemblies)에 속하지 않습니다(제 26 조). 기술적으로 말해서, 공동 의회는 협의회에 속하는 회의입니다. 협의회가 회중에게 그들의 생각들을 표현해 달라고 초청했다는 의미에서 공동 의회는 일종의 확대된 협의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협의회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1. 공동 의회는 “최소한 매년” 개최되어야 합니다(제 37 조). 그렇지만, 지혜로운 협의회는 한 해에 몇 차례의 공동 의회를 가지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전 교인들의 모임인 공동 의회에서는 논의될 수 없습니다. 그 사안들은 공동 의회에서 제외됩니다. 그 사안들은 “회중에 대한 감독과 권징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제 37 조). 교인들은 개별적으로 장로들과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사역들이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무흠한(in good standing - 결격 사유가 없는) 모든 세례 교인들로서 최소한 18세 이상 되는 교인들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공동 의회는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2주전에 미리 협의회에서 결정되고 회중에게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광고되어야 합니다.

4. 공동 의회는 협의회가 주관합니다. 협의회 의장은 통상적으로 공동 의회의 의장이 되고 질서있고 건설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목할 사실은 캐나다의 민사법은 현재 예산 승인에 대해서 전체 교인이 승인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캐나다의 국법에 따르면, 협의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5. 교회 헌법 제 5 조에 따르면, 공동 의회는 “협의회가 제시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만 고려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공동 의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가치가 있는,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숙고해 달라고 협의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모임입니다. 각 교인은 협의회 앞에 고려해 달라고 어떤 문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은 공동 의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이나 요청을 의사 일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협의회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공동 의회의 모임을 관례적으로 의장이 “또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제 37 조의 정신에 따라서 그와 같은 질문은 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동 의회에서 채택된 제안들(proposals)은 실행에 옮겨지기에 앞서서 반드시 협의회에서 검토되고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반드시 전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겠지만, 공동 의회에서 통과된 제안을 협의회가 실행에 옮기기를 꺼리거나 실행에 옮길 수 없을 경우, 다시 공동 의회를 열어서 그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속해서 조언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또한 협의회 소원들이 불필요한 법정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회중의 결사(법인) 조항들(the congregation's articles of incorporation,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될 때, 국가에 비영리 기관 법인체로 등록하면서 만들게 되는 해당 교회의 기본 설립 취지들과 기본적인 틀을 가리킴 - 역자 주)에 위배되는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6. 어떤 협의회들은 회중에게 자문을 구할 때 비공식적인 형태의 모임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에 대해서는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이나 “교인과의 대화 광장” 같은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협의회는 협의회 계획이나 비전 설정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44 장 신임 목사 청빙

여러분의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던 목회자가 다른 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멋진 환송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에 목회자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공석중”입니다. 이 단어는 교회의 공식 회의들이 기록하기를 꺼려왔었던 멧쩍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취해야 할 단계들은 어떤 단계들이 있겠습니까? 다음이 그에 대한 요약입니다.

1.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공석중인 기간은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교인들의 재능들이 발견될 수도 있고 자기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노회는 한 사람의 카운슬러(counselor - 고문)를 임명합니다. 그 카운슬러는 매우 귀중한 자원이 될 사람입니다(교회 헌법, 제 9 조).

3. 협의회는 열 명에서 열 두 명으로 구성된 청빙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최소한 한 명의 장로와 한 명의 안수 집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빙 위원회는 위원장과 두 사람의 서기를 임명합니다. 한 서기는 기록 유지를 위해서, 다른 한 서기는 서신 교환을 위해서입니다.

4. 목회자가 공석 중인 교회는 청빙 과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교회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시작하고 리더십을 제공하기에는 청빙 위원회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비전 설정에 관한 자료는 노회나 KMD사무실에 연락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빙 위원회는 협의회와 그리고 전체 교인과 여러 차례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배부할 설문지와 조사를 위한 용지들은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 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다음 목회자에게 어떤 유형의 은사들과 관심들이 필요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청빙 위원회가 접촉하게 되는 목회자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그 직무에 적임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청빙 위원회는 교회 사역의 비전과 계획과 목표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술서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청빙 위원회로 하여금 신임 목회자가 봉사해야 할 업무 사항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청빙 위원회는 모든 점에서 협의회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5. 청빙 위원회는 반드시 사역자 정보 서비스(Ministrial Information Service, MIS)또는 KMD사무실에 연락해서 교회 프로파일 설문지를 구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면, 청빙 위원회가 자기 교인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목회자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청빙 위원회는 또한 회중과 협의회와도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교회 프로파일은 사역자 정보 서비스 또는 KMD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주1)

6. 청빙 위원회는 또한 접촉하게 될 목회자들 용으로 정보 패킷(information packet)을 준비

합니다. 그 패킷은 앞서 언급한 진술서와 그 회중을 설명해 주고 주변 지역 사회를 기술하고 있는 팜플렛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 용 설문지(질의서)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청빙 위원회는 또한 MIS 교회 프로필의 사본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7. 고려 대상이 되는 목회자들의 명단을 작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 명단은 청빙 위원, 노회에서 파송된 카운슬러, KMD, MIS, 협의회 회원과, 교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교계 신문들에 광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8. 청빙 위원회의 명단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정보 패킷을 보냄으로써 그 목회자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개별적으로 봉인된 편지들은 그 목회자들에게 청빙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초청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9. 청빙 위원회는 그에 대한 답신들을 연구하고 평가하며, 추천서들을 검토하고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며, 설교 테이프들을 들어서 후보 명단을 축소시켜 나갑니다. 축소된 명단에 다섯 명 정도를 포함시킵니다. 협의회와 상의해서, 이 후보자들을 개인 인터뷰와 가능하다면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회는 그 목회자들의 여행 경비를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10. 협의회는 청빙 위원회의 추천을 고려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세웁니다. 단독 지명은 피하십시오. 단독 지명의 경우, 교인들의 참여도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독 지명의 경우, 투표자들이 후보자를 반대하여 자신들의 불쾌감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헌법 제 4 조 참조) 협의회는 공동 의회의 날짜를 정하고 회중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청빙 위원회는 각 후보들의 프로필을 교인들에게 제공합니다. 노회에서 파견된 카운슬러(교문)의 자문을 구해서 반드시 그 카운슬러가 소명서(청빙서)에 공동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11. 전 과정을 통해서, 청빙 위원회는 계속해서 협의회와 전체 교인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그들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12.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즉시로 감사의 표현을 전해야 합니다.

13. 청빙 위원회는 협의회와 상의하면서 신임 목회자를 위한 사례비를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비가 적절합니까? 신임 목회자가 그 사례비에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까? 이사 비용은 고려되었습니까? 신임 목회자가 다른 잡비를 초래하였습니까? 목사관은 좋은 상태입니까? 신임 목회자가 목사관에 들어가는 대신에 주택비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청빙하기로 결정된 신임 목회자에게 교단이 규정한 양식의 청빙서를 발송합니다.

주

1. 또한 다음의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이 소책자는 CRC 목회 사역부(Pastoral Ministries)의 산하 기관인 MIS에서 간행한 것입니다. Louis M. Tamminga, *A New Pastor for Greenville*. MIS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제 45 장 교회 안의 감독자들

“감독자”(overseer)라는 호칭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너희 자신들과 모든 양떼들에 대해서 잘 살피라. 성령이 그 양떼들에 대해서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들이 되라 ...”(영역에 따른 번역임)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5장 2절도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보살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목자들이 되라, 감독자들로써 섬기라”(영역에 따른 번역임)

감독자는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1. 장로들은 서로를 감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은 “너희 자신들을 계속해서 잘 살피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한 사람의 동료 장로로서, 이러한 감독의 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 48 장을 보십시오.)

2. 장로들은 목회자(들)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 임직식의 예식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되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또한 제 49 장을 참조하십시오.)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목회자(들)가 우수한 기준을 유지하도록 지지해 주는 일입니다. 장로들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일을 근면하게, 덕을 세우면서, 적절하게 행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보살피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과 성례의 사역입니다. 장로들은 목회자가 설교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목회자(들)과 토론하되, 언제나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의논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유익한 제안과 힌트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들이 균형 있고 적절한가, 그리고 관심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는가, 세심하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는가 등등을 다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해당하는 사실이지만, 지교회의 목회자들은 설교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우리 작은 애가 상기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가요?” 저는 대답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너는 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니?” 작은 애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함을 쳤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먼저 번에 한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에게 회개할 것과 어린양의 보혈을 통한 용서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할 때,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념하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떤 가정을 심방 가거나 혹은 점심 식사를 하러 가셔도 교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매주 두 편씩 설교를 준비하면서 높은 설교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입니다. 장로들은 목회자들이 때때로 한 주씩 주일 강단을 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를 쉬는 주간에는 목회자가 밀린 심방을 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협의회에서는 목회자가 사역과 설교의 사역에 대해서 이를 돕는 소위원회를 임명하고 있거나 집행위원회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문과 제안과 교인 의견 반영을 위한 좋은 구상입니다.

3. 장로들은 또한 전체 교인들을 감독해야 합니다. 교회 헌법의 제 12 조 a 항은 “[목회자들]은 장로들과 더불어서 회중들을 감독해야 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 25 조 b 항은 더 자세합니다. “장로들은,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회중과 동료 직분자들의 교리와 삶을 감독하고 회중에 대한 목회적 보살핌과 더불어 훈계와 권징을 실시하며 전도에 참여하고 전도를 활성화시키며, 믿음을 변호해야 합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 임명식의 예식사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안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참된 설교와 가르침과, 신실한 조언과 권징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교제와 따스한 대접을 장려해야 하며, 교회에 선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만 백성에 대한 증거를 독려해야 합니다.”

4. 장로들이 지니고 있는 감독의 책임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감독으로까지 포함합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예배와 공부반들과 전도와 교회의 각종 모임들과 교회의 회의들 및 당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들은 “교회의 회원들이 좋은 기독교 학교들을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부지런히 격려”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조직들과 제도들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 71 조와 제 72 조를 보십시오.)

임명식의 예식사는 장로들이 행하는 이러한 다스림의 업무가 영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권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진실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께 완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제 46 장 권징의 행사

교회의 회원에 가입한다는 것은 교회가 주는 복들과 은혜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동시에 교회의 훈계와 권징(훈련)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권징의 시행만큼 교회 생활에서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고민을 가져다 주는 일은 없습니다. 임직식의 예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동정심을 가지되,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책망하고 권징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미주 개혁교단은 이 어려운 일을 교회들이 시행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 헌법의 마지막 항목인 제 4 항은 교회에서의 권징의 사역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1991년과 1992년의 총회는 교회 헌법의 제 4 항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총회들은 또한 교회들에서의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습니다. 권징의 적용에 사용된 양식들도 수정되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협의회들은 이 유익한 자료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cts of Synod 1991*, p. 718 ff. 및 *Acts of Synod 1992*, p. 612.)

교회 헌법의 개정된 조항인 제 78-81 조는 교회 회원들에 대한 권징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조항 제 82 조는 직분자들에 대한 권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 장로회 운영 교본>(*The Manual of Christian Reformed Church Government*, 1994)에서 리차드 데 리더(Richard R. De Ridder)와 레오나드 호프만(Leonard J. Hofman)은 다음과 같은 관련 성경 구절들을 들고 있습니다: 마 16:19; 18:15-17; 고전 5:12-13; 및 고후 6:14-16. 또한 벨직 고백서, 제 29, 30 조 및 제 32 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문답 82, 84-85를 보십시오. 그들은 또한 *Acts of Synod 1976*, pp. 631-666에 인쇄되어 있는 귀중한 연구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 교본>의 pp. 382-418은 협의회들이 활용해야 하는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권징 사역의 원칙들과 시행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전체 총회 문서들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관련 총회 문서들을 섭렵하십시오.

1. 권징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권징은 “제자화”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제자화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친해 지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교회 회원들(교인들)을 생명력 있는 교회 일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권징의 의미입니다.

2. 권징은 교회의 목회 사역의 일부입니다. 모든 회원(교인)들에게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원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시정(是正)없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회원들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장로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권징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서로를 권징(discipline - 권계, 견책, 훈련)하여야 합니다. 시정(是正) 즉 고치는 일은 복음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권징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권징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의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회원들에게 이 점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즉 회원들은 자기 징계, 자기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3. 장로들은 언제 공식적인 권징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씩씩합니다. 모든 죄가 책망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원칙상으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정도가 하나의 고려 요소입니다. 공적인 피해도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죄인의 태도가 아마도 가장 큰 요소일 것입니다. 만약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완강하고, 아무런 회개를 보이지 않고, 그 특정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듭된 권고 이후에 공식적인 견책이 시작됩니다.

4. 개혁 교단의 교회들은 잘못을 범한 회원에 대해서 공정을 기하고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원 자격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마련된 통일된 시행 과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먼저 첫 번째 심방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몇 차례 더 심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장로가 그 잘못된 죄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그 회원에게 청합니다. 그들은 그 이슈를 철저히 하고, 사려 깊게, 기도하면서 토론합니다. 만약 그 회원이 이 시점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로들은 그 회원에게 그들이 그 심방에 대해서 당회에게 보고해서 당회의 조언과 의견을 구하겠다고 알려 줍니다.

당회는 장로들의 보고서를 세심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죄가 견책할 정도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심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로들은 다시 그 회원에게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장로들의 그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당회는 권징을 진행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권징을 진행시킨다고 한다면, 당회는 심방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그 회원이 성찬 참여 정지를 받았음을 그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외의 교회 회원(교인)으로서의 특권들을 정지합니다.

이러한 당회의 권징 행위들은 교인들에게는 전혀 보고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러한 권징 절차를 “비공개적 견책”(silent censure)이라고 부릅니다.

(버트는 내가 목회자로 봉사했었던 교회에서 그다지 좋은 명성을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거친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누구나 버트를 피했습니다.)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한 장로들의 한 모임에서, 한 장로가 자기에게 버트가 다른 장로(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음)에 대해서 그 장로가 과거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었다고 비난했다는 틀림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노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한 그 장로는 그 버트가 장로들의 심방을 받아야 하며 성찬 참여 정지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고통스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때, 버트의 비난을 받은 장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트와 나는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버트의 식구들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으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버트 자신이 이론 가정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일

하고 있는 공장에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제가 오늘밤에 버트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버트를 심방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해 주심을 바라고 함께 기도 드렸습니다. 한 시간 후에 그 장로가 돌아왔습니다. 그 장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잘못이 해명되고, 고백되고, 용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장로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버트에게 오는 주일의 성찬에 참석하도록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5. 정상적으로 장로들이 그 회원을 회개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목회적 심방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심방들이 수포로 돌아가면, 장로들은 다시금 당회에 보고하고 또 다시 토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회는 다음 단계의 견책을 진행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단계는 때때로 “공개적인 견책”(public censure)이라고 불립니다.

심방 장로들은 그 회원에게 다시 방문하여 오는 예배 시간에 회중 가운데서 한 형제 혹은 한 자매가 어떤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니 교인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공지 사항이 전해 질 것임을 알립니다. 이것이 공개적인 견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회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며, 그 죄가 어떤 죄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6. 그런 동안에 목회적인 심방은 그 회원(교인)에 대해서 계속됩니다. 만약 그 회원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회는 공개적인 견책의 두 번째 단계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회중에게 그 회원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 회원이 계속해서 회개치 않는다면, 교회의 모임으로부터 출교될 것이라고 알리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당회는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노회와 상의해야 하며,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공지하기 전에 장로들은 다시금 그 회원을 심방하고 그 회원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협의회가 취하고자 하는 다음 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 회원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한 주일에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

그 공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교인들에게 그 회원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요청. (이 때 그 회원의 이름은 밝히되, 그 죄가 무슨 죄인지는 밝히지 않아야 함. *Acts of Synod 1991*, pp. 720-722.)
- b. 만약 회개치 않을 경우, 그 회원으로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날짜.

7. 가능하다면, 장로들은 출교 날짜 이전에 다시 한 번 심방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이 일도 수포로 돌아간다면, 당회는 출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교의 발효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이 회중에게 공지됩니다. 북미주 개혁 장로교회의 시편 찬송가(*Psalter Hymnal*)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출교 선언 양식을 낭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출교 했다고 해서 당회가 가능한 목회적인 심방을 그 사람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러한 극단의 조치를 당한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회원으로

복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81 조 d 항은 당회에게 “회중에게 이 사실을 숙지시켜서 회중으로 하여금 교회 멤버십의 박탈과 복직하도록 격려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교회의 전도 위원회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도록 부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 오늘날과 같이 이동이 심한 시대에 때때로 회원들이 자신들의 교회 회원 자격(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협의회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사가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사하면서 청원이 있을 경우, 해당 교회의 협의회는 이명 증서를 발부해주어야 합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례 교인 혹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교인들이 그들의 교회 지역으로부터 먼 곳으로 이사하여 더 이상 의미 있는 교회 멤버십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그들의 요청과 그곳 당회의 동의에 의해서 그들의 본 교회에 그들의 멤버십을 유지시킬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요청을 하지 않고 그들이 이사한 곳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이명(移名)하지 않을 경우, 당회는 그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환으로 그 사람들의 멤버십은 그들이 이사한 날짜로부터 두 해가 지난 뒤에 말소됨을 선언할 수 있다. 해당 회원은 가능하다면, 당회로부터 그 조치에 대해서 통보 받아야 한다.” (교회 헌법 제 67 조의 보칙[補則, Supplement], *Church Order/ Rules for Synodical Procedure 1997*, p. 70.)

10. 세례는 받았으며,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회원들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교하지 않은 교회 회원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은 유아 세례에 의해서 교인으로 인정되지만, 아직 온전한 멤버십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으로, 공동 의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역자)에 대한 공식적인 권징은 온전한 멤버십을 지니고 있는 회원에 대한 권정보다 더 간단합니다. 그와 같은 회원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교리상으로나 생활 상으로 태만함이 나타나게 될 때, 당회는 여러 차례의 권면을 한 뒤에 그 회원에게 당회가 그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당회는 반드시 노회의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회중에게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느 날짜에 교회로부터 출교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지됩니다. 이러한 단계들 가운데 어느 것도 여러 차례의 목회적인 심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취해져서는 안됩니다.

11. 많은 경우, 권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권징 과정이 완결되기 이전에 자기들의 회원권을 포기합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권면을 받아야 하며 쉽게 떠나 가버리도록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도로서의 교회에 가입하여 제도적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은 원칙상으로 각 사람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자기의 멤버십에 대한 포기를 완강하게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권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십시오” (*Acts of Synod 1918*, p. 66). 회중에게는 그에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공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진행 과정들에 대한 세심한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십시오.(주1)

주

1. 또한 다음의 책을 보십시오. Harry G. Arnold, *Discipline in the Church*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89).

제 47 장 직분자들에 대한 권징

협의회가 행하여야 할 가장 슬픈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 협의회 회원 자체(목회자나 장로나 안수 집사, 혹은 전도자)에 대하여 징계하는 일입니다.

직분자들에 대한 권징을 둘러싼 대부분의 상황들은 아주 복잡적입니다. 그러므로, 협의회들이 어떻게 권징을 진행시켜야 할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회들은 그 과정의 초기부터 노회에게 시찰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자가 개입되어 있을 경우, 협의회는 교단의 목회자-교회 협력 기구(Pastor-Church Relations Services, PCRS)나 노회에 있는 PCRS의 지역 목회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직분자들의 권징에 대한 교단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약입니다.

1. 교회 헌법 제 82-84 조는 직분자들의 권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명 동의서에 대한 위반, 직분의 태만이나 남용, 혹은 건전한 교리와 경건한 품행으로부터의 이탈 등등과 같은 분야에서 행하여진 직분자들의 위반들은 대체로 견책 대상이 됩니다(제 83 조).

2. 개혁 교단은 직분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권징과 특별 권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권징은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에 적용되는 권징입니다. 특별 권징은 직분자들로서 그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적용되는 권징입니다.

일반 권징은 특별 권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특별 권징 과정 동안 회개가 표현되었다면, 대개 일반 권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직분자가 그 직임으로부터 해임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특별 권징은 직분의 의무들과 특권들로부터 해당 직분자들을 일시 정직(停職)시키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아직 직분자들의 유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법적 재판 과정이 그 직분자들이 행하기로 서약한 업무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발된 직분자를 정직(停職)시키는 협의회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북미주 개혁교회의 협의회 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두 교회의 협의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그 문제는 해결을 위해서 노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노회가 처음 교회에 속한 협의회 의 조치를 승인할 경우에, 정직(停職)이 발효됩니다.

4. 만약 이어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직분자의 유죄가 확립되고, 만약 이 일로 해당 직분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다면, 협의회는 정직(停職)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만약 그 과거의 죄가 지속적으로 봉사에 방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직분자에 대한 해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들은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게 유익을 줄 경우에만 정직시켰던 직분자들을 직무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제 84 조).

5. 말씀의 사역자에 대한 해직은 그 지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회는 이웃하고 있는 세(three) 노회들의 총회 대의원들의 동의 소견서를 받아서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적인 해직은 그 목회자가 속해 있는 협의회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노회 의회록 서기는 교단내의 다른 노회들에게 해직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각 노회는 노회 산하 교회들의 서기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6. 어떤 죄에 빠졌거나 권징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직분을 사임하게 될 때, 해당 교회의 협의회는 교회 헌법 제 82-84 조에 서술되어 있는 절차들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회는 사임하는 목회자의 신분(status)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들 가운데 하나라고 선언되어야 합니다.

- a. 사임한 목회자는 명예롭게 해임되었습니다(honorably released).
- b. 사임한 목회자는 해임되었습니다(released).
- c. 사임한 목회자는 해직되었습니다(dismissed).
- d. 사임한 목회자는 해직처분 되었습니다(deposed).(주2)

견책 대상이 될만한 죄에 대하여 유죄인 목회자들이 CRC의 멤버십으로부터 사임한다면, 공식적인 권징 절차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앞서 약속한 해직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7. 해직된 목회자가 직분에 대한 재심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목회자가 교회의 소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선언할 수 있는 결정은 그 목회자에 대한 해직을 결정했던 노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노회의 총회 대표들의 동의 소견서가 요구됩니다(제 84 조).

(직분자들이 서명 동의서에 서명할 때 무엇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인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직분자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신앙 고백서들 (벨직 고백서, 도르트 신경,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에 포함되어 있는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런 유보 사항 없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 고백서들이 사람이 형성해 놓은 것들이며 성경과 똑같지는 않지만, 개혁 교단은 신앙 고백서들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는, 직분자들이 어떤 신조상의 교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분자는 개별적으로 “신앙 고백상의 난점에 대한 진정서”(confessional-difficulty gravamen)나 “신앙 고백상의 동의하지 못할 점에 대한 진정서”(confessional-disagreement gravame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점에 대한 진정서”는 신앙 고백에 대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의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진정서”는 신조상의 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입니다.

총회는 신조들의 권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은 말로 못박아 놓았습니다. “서명자는 그의 동의 서명에 의해서 이 교리들이 모두 가장 훌륭하게 진술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며, 혹은 이 교리들이 고백된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며, 혹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고백서들에 진술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총회는 서명자가 “이러한 교리들의 공식화에 우연적인 언급들과 암시들과 인용들이나 그 신학적인 연역(演繹, 추론, deductions)에 매이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 제 5 조의 보칙, Supplement to Church Order art. 5, *Church Order/ Rules for Synodical Procedure 1997*, p. 25-26).

주

1. 또한 *Acts of Synod 1991*, pp. 719-720을 참조하십시오.
2. 교회 헌법 제 14 조 b 항과 그에 해당하는 보칙(補則)을 보십시오.

제 48 장 상호 격려와 대인격적(對人格的) 책임성

한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은 과중합니다. 그 할 일의 양()만이 아니라 그 중요성 때문에 직분자들은 항상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임직식의 예식사는 장로들에게 “목회자를 지원하고 강화시켜주는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되십시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때, 목회자는 직분자들을 “지원하고 힘을 북돋아” 줄 것이며, 말씀대로 행 하게 될 것입니다(살후 2:13-17).

어떻게 직분자들은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까?

1. 직분자들은 의도적으로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관심은 사려 깊은 말과 은혜로운 제스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협의회의 동료 회원의 생활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부담스러운 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그 사람과 그 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2. 특히 어려운 목회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십시오. 협의회에서 신임을 받는 동료의 충고를 주저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3.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개발하십시오. 좋은 인간관계는 건설적 협의회 사역의 기본입니다.

4. 구체적인 간구의 제목에 협의회에 속한 여러분의 동료들을 포함시키는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합심 기도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5. 교회 헌법 제 36 조 b 항은 적어도 분기별로 협의회는 “직분자들의 공식적인 직무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상호 검증을 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협의회 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상호간의 한 일과 삶의 행보를 승인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종종 협의회들은 성찬을 받기에 앞서서 협의회 모임에서 상호 검증(소위 말하는 “*censura morum*”)을 시행합니다. 이 상호 검증의 관례는 사려 깊게 실천될 경우, 특히 직분자들이 진지하게 협의회가 해온 일의 질을 평가할 때,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관례의 기본 원칙은 직분자들이 지체없이 한 개인의 수준에서 걱정들과 우려들을 표현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분자들은 협의회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과 안수 집사들과 목회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은 또한 협의회들이 정기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 그들의 사역의 질과 회중의 안위를 평가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일을 주도할 수 있을까? 등등을 고려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협의회들은 또한 우정과 상호 인정의 정신 가운데서 동료로서 함께 섬기는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17절에 나오는 바울의 축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 49 장 목회자에 대한 지원

제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긴박감과 목회자의 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아마도 교인들이나 협의회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그저 한 가지 실례를 드는 것으로도 그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한 청년 회원이 마약을 복용하고 또한 마약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황한 그 청년의 부모님이 목회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는 곧 전문적인 보호 간호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여섯 주 동안의 그 목사의 계획 일지에는 열두 차례의 심방과 컨퍼런스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의 그 부모님들과의 면담, 네 차례의 그들의 아들(마약을 한 청년)과의 면담, 한 차례의 학교 지도 상담원과의 회의, 두 차례의 치료담당 의사와의 면담, 한 차례의 학교장과의 면담, 그리고 한 차례의 법정 직원과의 회의...

그 목회자는 이러한 심방들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 일들은 모두 그 목회자의 정서를 고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이러한 시간 투자에 대해서 협의회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상황일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정기적으로 예외적인 상황들에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장로들이 그들의 목회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1. 목회자들은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동정을 구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해와 인정해 준다는 표현들을 고맙게 여깁니다. 장로들이 목회자들의 책임들이 지닌 일의 분량과 어려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을 경우, 목회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2. 장로들과 안수 집사들은 목회자들에 대한 사례비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성에 상응하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신뢰와 솔직함을 배경으로 해서 매년 보상(compensation)이 의논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목회직이라는 것은 할 일이 끝이 없는 직업입니다. 개인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 사이의 경계선들도 쉽게 무너집니다. 장로들은 목회자들의 생활 가운데서 두 생활 사이의 경계선이 구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두 생활 각각의 영역에서 흔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시간과 열심에 대한 지나친 요구들 때문에, 목회자들은 의당 그래야 할 만큼 책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묵상하지 못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목회자들이 정기적으로 연구 휴가들과 안식 기간들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며, 매주 읽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5. 목회자들은 설교하는 일로부터의 정기적인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준비를

하지 않는 주간들은 못 다한 심방과 행정적인 업무들과 교안(敎案) 준비 등을 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6. 장로들은 교인들에 대한 목자들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 대한 목자들이기도 합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목회적인 보살핌이 최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인지 목회자들과 의논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영적이며 정서적인 건강을 (육체적인 건강도) 소홀히 하거나 당연히 있을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총회는 자주 목회자들과 스텝진들의 안위에 대한 총회의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1982년 총회는 지 교회들이 그들의 목회자 각 사람에 대한 지원 그룹(support group)을 결성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Acts of Synod 1982, p. 78*).

모든 교회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안에 따라서 목회자 지원 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은 목회자들에 대한 부수적이며 지속적인 보살핌을 위한 좋은 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을 흔히 목회관계 위원회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 위원회들은 대개 한 사람의 장로와 두 사람의 교인(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 이상 세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이 삼인 위원회는 그들의 지혜와 성숙도, 분별력, 경건함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목회자 부부와 의논해서 선발됩니다. 삼인 위원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와 격려를 위해서 목회자 부부와 만납니다. 모든 목회적인 보살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지원 그룹은 엄격한 상호 기밀 유지의 원칙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합니다.

주

조언과 자료를 위해서는 목회자-교회 협력 기구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Pastor-Church Relations,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전화는 1-616-224-0746.

제 50 장 의사 교환

좋은 의사 소통은 교회를 기계라고 생각할 때, 그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 없이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들도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고려 사항들입니다.

1. 협의회는 각기 역할을 감당하는 의사 소통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체계는 협의회로부터 회중(교인들)에게로, 그리고 회중(교인들)으로부터 협의회에로의 매끄러운 정보 유통을 제공해 주며, 회중의 활동들에 관한 정보들을 회원 교인들에게 활발하게 전달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 체계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의사 소통이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체계가 디자인되어야 하며,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의사 소통 체계를 마련했을 때의 장점들은 아주 많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도전과 짐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더 유익하게 연결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교인들은 또한 그들 교회의 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2. 교회 광고판들은 효과적인 의사 소통 수단들이 되어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또한 교회 프로그램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뉴스레터(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들을 만드는 일은 협의회 구성원들과 각종 위원회의 서기들과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충분한 협조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속, 간결, 정확성이 항상 중요합니다.

3.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안수 집사들은 서로 계속해서 정보를 상호 교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 장 28절에서, “모든 양떼에 대해서 항상 감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중 가운데서 무슨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눈과 귀가 되, 적절한 관찰 사항들을 적절한 직분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4. 의사 소통은 정직성과 결백성을 특징으로 해야 합니다. 전해야 할 소식들 가운데 좋은 소식들도 있고 나쁜 소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중은 동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성장할 것입니다.

제 51 장

비전 확정, 계획, 목표 설정, 그리고 프로그램 짜기

대부분의 교인들은 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어떤 부분들이 의당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예배들은 집전(執典) 되고, 목회적인 보살핌은 제공되며, 공부반들은 개설되고, 여러 가지 각종 모임들과 위원회들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나 온 수많은 세대 동안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은 거의 항구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들은 자신들의 확신과 은사(gifts)와 필요와 관심과 자원과 기술들 중에서 무엇이 독특한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특징들이 그들 교인들의 삶과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전들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으며,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교회들은 그에 대한 답변들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하고 순종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마스터 플랜, 목표 설정, 우선 순위화, 자기 연구(self studies), 교인 설문 조사(congregational surveys), 진전과 변화 모니터링(감사) 등등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에 새로운 용어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비전 선언문은 여전히 적절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협의회는 전체 교인들이 동의 위에서 이루어진 계획들에 대한 실천적인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척 상황을 세심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스터 플랜을 짜는 과정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그 목표들 가운데서 어떤 목표들이 달성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전체 교인들에게 그 상황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불가피한 수정들과 조정을 처리했습니까?

이러한 물음들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협의회는 리더십 팀과 상의하여 따로 주말이나 주중의 저녁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그와 같은 비전 연구와 계획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것을 고려하십시오.(주1) 그 장점들은 아주 많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부르심에 관한 성경 연구에 교인들을 참여시키십시오. 교인들은 자신들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도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교인들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비되어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교회 주변의 필요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교회라는 가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

1. 다음을 보십시오. Dirk J. Hart, *Charting a Course for Your Church* 및 *New Designs for Ministry Structure*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6). 북미주 개혁 교단의 국내 선교부는 여러분이 종합적인 사역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 52 장

교회 스태프(Staff)와의 관계

거의 모든 북미주 개혁 교단의 교회들이 행정 사무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거의 절반 이상이 그 이상의 스태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스태프의 봉사들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여러분은 스태프로 일할 사람의 전문적인 기술들과 비전을 보고서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하십시오.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2. 각 스태프는 협의회와의 사이에 서로 동의하는 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의 모든 조건들은 세심하게 표현되고 명확하게 서로간에 이해되어야 합니다.
3. 각 스태프는 자신의 일에 해당하는 직무 명세서(job description)를 가져야 합니다. 직무 명세서는 정기적으로 상의되고 필요할 경우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스태프들 간의 내적인 상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태프는 한 주에 한 차례씩 기도와 계획과 보고와 상호 감독을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차이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안됩니다.
5. 스태프들은 스태프의 장(長, 우두머리)이 있을 때, 가장 역할을 잘 감당 한다는 사실이 알려 졌습니다. 스태프의 장이 되는 사람은 스태프의 활동들에 협조하고 그 활동들을 통합시켜주어야 하며, 협의회에 대해서는 스태프들의 주요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태프의 장은 모든 주요 계획과 의사 결정이 스태프의 의견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범위한 스태프의 지원이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주도되어서는 안됩니다.
6. 협의회들은 스태프들을 감독하고 스태프와 협의회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 협의회 구성원 가운데서 소위원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7. 스태프는 한 일과 비전에 대하여 협의회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스태프 멤버들은 자료 제공자로서 협의회 모임들에 참석하는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에 대한 그들의 역할이 논의될 경우에는, 스태프도 발언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8. 개별 스태프들 사이의 그리고 스태프와 협의회 사이의 의사 소통은 중요합니다. 스태프의 장(長)은 이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주1)

주

1. 또한 다음의 책을 보십시오. Dirk J. Hart, *Staffing the Established Church*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3) 및 Louis M. Tamminga, *Questions Church Staffs Ask* (Grand Rapids, Mich.: CRC Pastor-Church Relations).

제 53 장 변화에 대한 대처

성장은 언제나 변화를 불러옵니다. 열정적인 교회 프로그램은 불가피한 변화들을 몰고 올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변화를 항상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종종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그 교회의 생명은 죽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16 세기 종교 개혁의 초기 시절에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 따른 깊은 변화들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1. 변화를 위한 변화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모든 변화에 대한 반대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은 열려진 마음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용기 있게 포용되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변화에 대항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체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2. 여러분은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제안된 사역이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 올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은 확보되었습니까?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교인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을 전달 받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코스에 서 있다고 확신한다면,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변화에 대한 저항은 종종 그 자체의 복잡성을 지니고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이전의 토대들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압력에 못 견뎌서 뒷걸음질치지 마십시오. 열띤 공방의 대상이 된 사역들에 대한 여러분의 선한 소망들을 피력하십시오.

4.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의했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었다면, 협의회로서 여러분은 반대가 드세어진다고 해서 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행시켜 나갈 코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회중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장로들의 워크숍과 전교인 수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주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 교회는 그 보수적인 입장에 대해서 공개적이었지만, 그 교회의 예배 의식은 대체로 혁신적이며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원로장로 한 사람에게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팀을 이루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전체 교인들이 참여했지만, 그 공로의 대부분은 우리 목사님의 몫이지요. 우리 목사님은 협의회와 전 교인이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들을 공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협의회와 상의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 의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고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배 순서를 존경과 위엄을 가지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존경과 위엄을 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5. 균형있는 사역 프로그램을 유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에 새로운 형태의 찬송을 도입하겠다고 동의하였다면, 전체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익숙한 찬송들도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6. 변화를 모니터(감시)하십시오. 협의회 회원들과 지도자들로서, 정기적으로 사역의 프로그램들과 그 실천 상황을 검토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시정하고 조정하십시오.

7. 좋은 감각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들이 교회답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십시오. 특히 예배 의식들은 덕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인도 되어가야 합니다. (제 54 장을 보십시오.)

제 54 장 갈등 처리

교회 내부적인 괴로운 갈등(싸움)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갈등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과 역학은 대개 매우 복잡합니다. 갈등을 처리하고 해결을 향해 일을 해나가는 책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파들 사이의 갈등이 외부의 도움 없이 해결되는 예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에 제시된 간략한 관찰들을 적절한 능력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잘 확대시켜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동료 장로 한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 발생한 갈등의 상황을 해결해 보기로 동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엇을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1.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는 갈등들은 점점 더 커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해결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들은 전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갈등 중에 있는 양편(각 편은 몇 사람의 교인들로 뭉쳐 있을 수 있습니다)이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개입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공하는 도움을 그 갈등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여러분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펼치기에 앞서서 준비 단계가 중요합니다. 양편을 각각 한 차례 심방하고 면담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양편을 번갈아 가면서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양편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그들의 협조가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또한 만약 양편 모두가 진지하게 화해를 추구한다면, 그러한 화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다짐을 주십시오.

4. 각 편은 자기편의 입장이 옳다는 점을 변함 없이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각 편은 자기편이 그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화해는 서로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설명이나 해명을 받아들이고, 나쁜 동기들을 버리고 선한 믿음의 확신을 존중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십시오.

5. 그 일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롭고 동정적이 되십시오. 그들은 나쁜 의도로 이 갈등에 얽혀들게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로서는 통제할 수 없었던 사건들 때문에 위협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내로 대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품고 있고 노출시키는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여러분이 불쾌해 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각 편을 방문하고 면담할 때, 싸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십시오. 양편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싸움과 갈등이 지속되면, 곁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개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는 어느 정도나 심한 수준입니까?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합니까? 양편을 면담하면서 몇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양편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각 편에서 하고 있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어째서 그들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불일치와 오류를 발견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 그들에게 비 위협적인 태도로 하나씩 짚어 가십시오.

7. 양편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이기 전에, 한 번에 한 단계씩 만을 밟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갈등과 싸움이 쉽게 빨리 해결되는 예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그렇게 빨리 해결된다면, 아마 곧 다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감정적이 되어 있고 아주 예민해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갈등을 여러분이 해결하기를 바라기 앞서서, 여러분은 그 싸움이 더 이상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작은 성공입니다.

8. 자,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일은 양편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도록 주선하는 일입니다. 만약 준비 단계에서 분노와 상처가 너무 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 만남의 자리에 두어 사람의 능숙한 중재자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앞서서, 그러한 생각을 먼저 양편의 사람들과 교회의 협의회에 허락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양편에서 처음에는 그러한 생각을 반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지하고 끈기 있게 그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십시오. 그 현실이란 그들이 갈등과 싸움이 너무 심각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과 교회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9. 환영의 말과 기도로 협상(대화) 모임을 시작하십시오. 그 만남의 목적을 간략하게 진술하십시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선의로 대하고 협조하도록 하라고 호소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만남의 기본 원칙들을 설명하십시오. 그 모임을 주선하고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은 여러분임을 지적하고 강조하십시오. 발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발언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말을 가로막고 끼어 들어서 발언하지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식적인 예의를 지켜달라고 주문하십시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몇 차례 더 모임을 제안하고 주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중재자로서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였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 만남은 평결이 내려지는 법정 심리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십시오. 이 모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 서로간의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서로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로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화해의 모임입니다.

10. 여러분은 그 모임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그 갈등의 본질과 싸움이 되고 있는 이슈들과 그리고 필요할 경우 그 갈등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간략한 요약물 세심하게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준비한 문건을 읽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그 모임에 앞서서 양편을 개별적으로 만났던 일들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그간의 일에 대한 여러분의 정리(整理)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물으십시오. 비록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그러나 토론이 바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양편에게 상대방의 설명들을 진솔한 설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호소하십시오. 어느 사람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 나쁜 동기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탓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분노의 표출이나 거친 비난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화를 낼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이면, 그 반대편 사람에게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만약 그 대답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이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말로 그 답변을 요약하십시오. 양편이 해명과 설명을 제공하고 선의(善意)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십시오. 오해나 잘못된 이해가 제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일이 오해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질 경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답하라고 요구하십시오.

11. 그 진행 과정에서 이 단계는 그 만남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를 거의 예상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중개자들끼리 중간에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주저말고 간단한 정회(停會, 휴식 시간)를 선포하십시오. 만약 만남이 잘 진행되었다면, 해명들과 결론들에 대한 진술서를 하나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각 편의 중심적인 인물들과 각각 따로 만나서 그들이 화해를 받아들이려면 어떤 점들이 선결될 것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모임을 재개하고 그 진술서를 기초로 해서 해결과 화해를 받아들이도록 협상하십시오.

만약 또 한 차례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이 점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부드럽게 알려주고 더 이상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삼갈 필요가 있음을 그들에게 주지시키십시오. 세심한 기록은 모임마다 진행과정마다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12. 화해에 도달했을 경우, 적절한 형태의 축하를 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 동의한다면, 양편이 서로 다가와서 악수를 하고 상대방의 선의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도 그와 같은 모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인을 위해서 어떤 진술서를 하나 작성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면, 먼저 양편의 허락을 구하십시오.

13. 그 뒤에 잘 하고 있는지를 보살펴 주는 후속 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양편에게 심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심방을 통해서 그들의 우려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후속 조치의 노력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전심을 기울여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주1)

주

1.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CRC 목회자-교회 협력 기구는 이러한 유형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각 교회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Loius M. Tamminga, *Conflict in the Church*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88)을 보십시오. 또한 다음의 책에도 필요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peed B. Leas, *Moving Your Church Through Conflict* (Washington, D.C.: Alban Institute, Inc., 1985), 및 Robert D. Dale, *Surviving Difficult Church Member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제 55 장 예배 의식에 대한 감독

예배 의식들은 교회 사역 프로그램의 기둥들입니다. 설교와 예배만큼 회중의 건강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의 이 노력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헌법에 있는 예배 의식에 관한 기본 조항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의식을 주관합니다: “당회가 예배 의식들을 관할합니다”(제 52 조 a 항).

총회는 “주일에 두 차례 예배를 위해서 회집하는 풍성한 전통”을 확인하였습니다(제 51 조 보칙). 그 의식상 현저한 요소들은 설교와 성례와 찬송과 기도와 헌상(헌금)입니다. 그리고 총회적으로 인정한 성경 번역본들과 찬송가들이 사용됩니다. 예식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의식들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집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경을 해설하고 적용”시켜야 합니다(제 54 조 a 항). “Reading services”의 경우, 설교를 하려면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ading Services는 회중과 더불어서 성경의 여러 곳을 절기나 주제에 따라 준비하여 함께 읽는 식으로 구성된 예배입니다. - 역자 주) 보통 매주 설교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사용됩니다(제 51-54 조).

대체로 총회는 예식의 관행에 있어서 교회들 간의 일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총회는 예배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자연스러움(spontaneity)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협의회에 허락하였습니다 (*Acts of Synod 1970*, p. 69; *Acts of Synod 1991*, pp. 706-707).

예배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그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으로 만납니다. 예배에서 특별한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 대화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에게 응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행동들 가운데는 (지명된 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설교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낭독과 사죄의 선포와 회중에게 대해서 선포되는 축복(축도)가 포함됩니다. 회중 편에서 행하는 행동들 가운데는 죄에 대한 고백과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순복과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하여 응답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성례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공동체는 모두 일치하여 말하고 행동합니다.

설교는 예배 의식에서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고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며, 회중들은 회개와 믿음과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동행(同行, walk - 생활을 말함)함으로써 세워지며, 봉사할 수 있도록 구비됩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 또한 한 가지 목적을 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이러한 상호 약정에 기여하지 않는 요소들이 예식 가운데서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1. 예배 의식들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현재 예배 의식 준비를 돕도록 예배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예배 위원회의 운용은 유익을 줄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 의식은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도 공동체적으로 한 몸으로써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시오. 그러한 실수들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이 과정의 일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예배 의식을 준비하는 대신에 한 팀을 이루어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일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2. 주현절(Epiphany -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내방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 사순절(Lent - 성회일[聖灰日, Ash Wednesday - 참회를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재를 뿌리는 수요일]에서 시작하여 부활주일까지의 사십일로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십일 금식하신 것을 기념하여 참회와 회개를 하는 기간), 부활절, 오순절, 강림절(성탄주일전의 4주간) 등등의 교회력에 있는 절기를 기억하십시오. 예배 의식의 색조와 분위기는 이 절기에 해당하는 구원의 초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지교회의 특별한 일들도 축하에서부터 애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예배 의식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 찬송은 예배 의식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회는 “인정된 찬송들을 고수하라”고 말하고(시편 찬송가[*Psalter Hymnal*]에 있는 찬송들) 보충적인 찬송들이 사용될 경우, 찬송가에 관한 규칙들을 준수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장로들과 목회자들과 예배 위원회 회원들은 회중의 음악과 찬송이 탁월해질 수 있도록 영적이며 신학적인 안테나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한 유익한 정리는 청색 <시편 찬송가>의 v 페이지와 회색 <시편 찬송가>의 11-15 페이지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유의해서 공부될 가치가 있습니다. 회색 찬송가는 찬송들을 선별한 기본 원칙들을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 원칙 서술(Statement of Principle)에 열거되어 있는 네 가지의 예식상의 기조(基調, motif)는 교회 음악은 성경적이며, 보편적이며, 고백적이며, 목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음악은 예배에 적합해야 한다 - 즉 예식적(liturgical)이며 미학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4. 회중의 기도는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의 기도는 전체 교인이 간구와 중보 기도를 위해서 회집하는 독특한 이벤트입니다. 기도들은 설교와 예배 의식의 초점을 반영하고 회중의 필요와 처해 있는 도전들과 세상의 필요들과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중보적 요소는 결코 회중 기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5. 장로들은 목회자들에게 예배 준비를 위해서 상당 시간을 투자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때때로 장로들은 예배 의식들을 관찰하여 목회자들에게 건설적인 제안들을 하여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때는 예배와 음악과 찬송의 원칙들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주

유익한 예배 연구 보고서들은 *Acts of Synod 1928*, pp. 276-302와 *Acts of Synod 1930*, pp. 335-358과 *Acts of Synod 1968*, pp. 134-198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 리더들은 CRC Publications,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에서 발행되는 음악과 예배에 대한 계간지인 *Reformed Worship*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cf. James A. DeJong, *Into His Presence*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85).

제 56 장 성례 집행에 대한 감독

성찬과 세례를 성례 혹은 성례전(거룩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성례는 예배 의식들의 본질적 부분들입니다. 성례는 앞장에서 설명한 대화 패턴에 잘 부합합니다. 거룩한 교제(성찬)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회중에게 성례적으로(sacramentally)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중은 성례적으로 제공된 하나님 자신을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세례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며 인봉 합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혹은 유아 세례의 경우 그들의 부모들)과 전체 회중은 믿음으로 생산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받아들이며 서약합니다.

성례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성례에 대하여 개혁 장로 교단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대한 요약입니다.

두 성례전들

교회 헌법 제 55-60 조는 성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례시에는 규정된 양식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총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약간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제 55 조, *Acts of Synod 1991*, pp. 706-707; *Agenda for Synod 1994*, pp. 166-191).

성례들은 공적 예배 가운데서 당회의 권위에 근거해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나 전도자 (Evangelist)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말씀과 성례는 함께 속합니다(제 55 조).

세례

1. “하나님의 언약은 거룩한 세례에 의해서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봉해져야 합니다. 당회는 세례가 요청되고 가능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제 56 조).

2. “자신의 자녀들을 세례 받게 하지 않은 교인들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서 교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권징 받아야 합니다” (*Acts of Synod 1888*, p. 19).

3. 믿는 부모들에 의해서 입양된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ts of Synod 1930*, p. 93).

4. “세례를 받지 않았던 성인들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경우 거룩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인에 대한 세례 양식이 그와 같은 공적인 고백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제 57 조).

5. 총회는 성인의 재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총회는 그와 같은 행위는 “성경과 신앙고백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cts of Synod 1971*, p. 162).

6. 총회는 부모들에게 유아 세례의 의미와 함축적인 뜻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설명해 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Acts of Synod 1973*, p. 78).

7. “기독교의 다른 교파에서 들어온 세례 교인은 만약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교단이 인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을 경우 그 세례는 타당합니다” (제 58 조).

8. 여러분 자신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시편 찬송가>에 나와 있는 세례 예식사들을 살펴보십시오. 또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25-27 문답과 벨직 고백서 제 33, 34 조와 <우리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다> (*Our World Belongs to God*) 제 40 항을 참조하십시오.

9. 총회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근거해서 성령 세례를 “제 2의 축복”으로 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총회는 또한 엡 2:18; 2:22; 요 3:5; 행 2:39; 롬 8:1-17; 15:13; 고전 3:16; 고후 1:21; 갈 3:2; 5:16-26; 및 요일 2:20-27을 지적하였습니다.

총회는 교회들에게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언약적 삶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의 확신이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총회는 구원의 선포와 수용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Acts of Synod 1973*, p. 73).

성찬

1. “성찬식은 적어도 삼 개월에 한 차례씩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당회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성찬 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의식들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제 60 조). 총회는 교회들에게 삼 개월에 한 차례보다 더 자주 성찬식을 거행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Acts of Synod 1971*, p. 131; 또한 벨직 고백서 제 35 조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제 28-30 주일을 참조하십시오.)

(성례로서의 주님의 성만찬

우리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야함과 연약함을 마음에 두셔서 우리 속에 그의 약속들을 인쳐 주시며, 우리를 향한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며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례들을 제정하셨음을 믿습니다.

.....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주시는 구원을 우리 속에 확증시켜 주십니다.....

.....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며, 우리에게 이해 불가능한 것입니다.....

.....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 그리스도 자신의 자연적 몸이며 우리가 마시는 것이 그 자신의 피라고 말한다고 해서 잘못이 아닙니다. -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먹는 방식은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식입니다.

-- 벨직 신앙 고백서 제 33 조와 제 35 조에서)

2. 성찬을 감독하는 방법과 방식은 당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Acts of Synod 1975*, p. 103).

3. 다른 기독교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수찬 교인들(communicant)인 손님들은 성찬에 참여하도록 초청될 수 있으나 참여의 요구 사항들인 회개와 믿음과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Acts of Synod 1975*, p. 103).
4. 환자는 교회 대표를 통해서 집에서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ts of Synod 1914*, p. 17).
5. 성찬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Acts of Synod 1904*, p. 38).
6. 어린 자녀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적으로 입교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 전 “그들의 동기들과 믿음과 생활에 관하여 적절히 검토한 후”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자녀들이 만 18 세가 되면, 입교시켜서 계속해서 개혁 교단이 받아들이고 있는 신조들(신앙고백들)과 성인 교회원으로서의 책임에 헌신하고 그러한 회원 자격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권리들과 특권들을 받도록 초청되어야 합니다 (*Acts of Synod 1995*, p. 762; 제 59 조 b 항).

성례들은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성례들은 구원의 이러한 실체들을 그려주고 인치기 위해서 주님께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례들은 일종의 추가적인 선물입니다.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성례들은 보이며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확증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더디 배우며 쉽게 낙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마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추가적인 특별선물인 성례들을 놓고서 싸움을 벌이고 그 때문에 쓰라린 분열을 했었다는 사실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들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쟁들은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선물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에 답해서, 여러분의 당회는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중에게 성례들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성례들에 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찬은 단지 기념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은혜들과 더불어서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영적인 상(床, 영적인 의미의 ‘밥상’이라는 뜻임 - 역자 주)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 35 조)

- 성례들의 의미와 시행에 관한 어떠한 논쟁도 잘라 버리십시오. 행하는 것보다 말하기가 더 쉽다고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다른 세부 사항을 배제하고서 어떤 세부적인 면들을 주장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제 57 장

설교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교단의 교회들은 총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요리 문답서를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교회 헌법 제 54 조 b 항은 “매 주일 예배 의식들 중 한 예배에서 목회자가 그 순서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요약되어 있는 말씀을 통상적으로 설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니고 있는 함축적인 뜻에 주의하십시오.

1. “통상적으로”라는 말은 엄격성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차례대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를 들성들성 빼먹으면서 무작위로 이곳 저곳 다루지 말고 체계적으로 전체를 다 훑어나가십시오.
3. “요리문답을 설교하라”는 말은 교회 헌법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요약 정리이며 해석이며, 말씀과 동등하게 설 수 없는 인간의 작품입니다. 말씀이 설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요리문답에 의해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4. 적어도 요리문답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데서 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a. 이를 시행 할 경우, 설교자들은 요리문답이 말씀으로부터 뽑아낸 구원의 주요 주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설교자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 b. 요리문답은 구원 교리들과 경건한 삶의 행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갖춘 교회들을 만들어 줍니다.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시찰단들이 각 교회에서 요리문답이 진지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설교 되어야 할 부분을 설교에 앞서서 먼저 회중에게 읽혀주라”는 규정을 덧붙였습니다 (*Acts of Synod 1950*, p. 441).
5. 총회는 교회들에게 설교시 벨직 신앙 고백서와 도르트 신조들도 사용하라고 권면 하였습니다 (*Acts of Synod 1973*, p. 65).

제 58 장 선교와 전도의 도전

북미주 개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단은 지교회와 노회와 총회 수준에서 교회에 대한 선교 도전을 주의 깊게 정의해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단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부응하고 있습니다(마 28:19; 또한 막 16:17-18; 눅 24:45-49; 요 17:18; 20:21-23; 행 1:8; 고후 5:18-21을 참조하십시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21 주일은 그 도전을 다음과 같이 유려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 가운데서,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끝 날까지,
영생을 위하여 선택된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좀더 최근에는 <우리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다> (*Our World Belongs to God*) 제 44 항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가 고백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따라서, 교회는 파송되었습니다 -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만국에서 제자들을 삼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죄에 대한 용서와 새 생명이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을 선포하고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뉴스를 전하도록,
교회가 파송되었습니다.”

교회 헌법 제 73-75 조에서 교단은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 조항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협의회들은 교회들로 하여금 대사명(the Great Commission - 대위임령이라고도 함)에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은 “각 협의회는 교회원들이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국내전도와 국외 선교에 그들이 관심과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73 조 b 항). 그리고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전도의 사역에 참여하고 권면”해야 할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 임명식의 예식사는 지도자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들을 나누어 주라”고 도전하고 있

습니다.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만약 전도의 실천이 꾸준하고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준 구원의 축량 못할 부요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니케아 신조에 있는 말을 사용해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옷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교회는 수세기를 걸쳐 존재하며 모든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적”입니다.

대사명은 신약 교회의 추진력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의 교회를 움직이게 하십시오.

전도는 알맞는 환경 가운데서 피어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교회원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구원에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협의회는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핵심을 처리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협의회가 그 일을 아주 책임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안위가 그 일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큰 그림이란 산 위에서 환하게 비추어주는 빛이 되라는 소명입니다. 그 비전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 비전을 놓고 토론하십시오. 그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 비전에 대해 읽으십시오. 그 비전에 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비전에 대해서 소망하십시오.

이 비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주1)

- 여러분의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친구나 이웃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그 점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손님들을 환영하십시오.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고마움을 표시하십시오. 후속 조치로 심방을 약속할 수 있을까요?

- 전도에 관하여 관심 있는 목회자들은 그 교회의 장로들의 뒷받침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목회자를 돕겠다고 제의하십시오.

- 여러분의 교회에는 활발한 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전도 위원회를 여러분이 지원하십시오. 전도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몇 가지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 위원회가 교회 전체를 동원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전도가 교회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감동을 주는 선교사와 전도 강사를 여러분의 교회에 초청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한 강사들은 여러분의 교인들을 크게 변화시키고 커다란 동기를 부여시켜 줄 것입니다.

- 전도의 영적인 은사를 보여주고 있는 교인들을 확인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에게 활발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가 되라고 부드럽게 끈기있게 격려를 해주면 그들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의 동료 직분자들을 격려해서 개방성과 따스함이 배어있는 예배 의식들을 만들어 가도록 도우십시오. 그런 예배에서 방문자들은 자기들이 귀중하게 대접받고 존중받고, 사랑 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 여러분은 “관계 전도”와 (커피 브레이크 사역, 남자의 삶[Men's Life], 자구 그룹 [self-help group] 등등과 같은) “옆 문 사역들”(side-door ministrie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 생활에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 말과 행위는 전도라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강조해 주는 구제와 도움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의 안수집사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 창의력을 살려서 상징적인 제스처를 생각해 내십시오. 어떤 신자들은 어떤 동아리나 그룹 기도회에 모여서 의도적으로 의자 하나를 비워두었습니다. 그 그룹의 한 멤버가 말했습니다. “이 의자는 다음 번에 우리가 데리고 올 초대 손님이 앉을 자리입니다.”

- 여러분의 교회는 비전 선언문과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자주 말할 기회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언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한 시간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 전도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동료 직분자들에게도 자원하고 협력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전도 스태프를 한 사람 고용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고독한 전도 일꾼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 여러분의 지역은 The Back to God Hour 방송의 가칭 지역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그 일일 목상을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원의 전화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인들은 여러분의 지역에서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 여러분의 전도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전도는 영혼 구원 그 이상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지금 있으며, 또한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인생과 공동체들과 사회의 여러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함은 위대한 장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봉사의 열매들은 오직 장차 올 시대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전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실이 해당됩니다. 북미주 개혁 교회는 세계 선교와 오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과거 1910년에 총회는 실질적으로 지역 교회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총회는 교회 회원들에게 선교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설교와 교육을 들었습니다. 총회는 각 교회가 자체 선교사를 후원하고 정기 선교 축제들을 개최하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총회는 또한 “매주 선교를 위한 체계적인 헌금을 거둘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훌륭한 권면입니다! (Acts of Synod 1910, p. 24)

주

1. 도움과 유익한 자료를 다음의 국내 선교부나 해외 선교부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Home Missions and World Missions,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및 The Back to God Hour, 6555 West College Drive, Palos Heights, IL 60463. 캐나다의 주소는 세 기관 모두 동일합니다.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제 5 부 지역 교회를 넘어서

이 핸드북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두신 좀더 넓은 맥락을 탐구 할 것입니다. 교단 내의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단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다른 교단과 단체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제 59 장 노회의 일원

노회(classis)는 교회의 세 회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세 회합은 하나의 회중(a congregation, 개교회), 노회, 그리고 총회입니다(교회 헌법, 제 26 조). 노회는 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약 이 삼십 여개의 교회들을 한 집단으로 해서, 그 집단에서 나온 대의원들로 구성됩니다(제 39 조). 북미주 개혁 교단은 47 개의 노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회가 가지고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 교회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노회를 통해서, 여러 개교회들은 서로간의 사귄과 격려와 도움을 누리며,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교회들은 노회들이 노회의 사역을 두 가지 영역들에 제한해야 할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두 영역은 개교회들에게 공통적인 문제들과 지 교회의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제 28 조 b 항). 예를 들어서, 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에 교목 사역을 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 교회가 감당 하기에는 너무나 큰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또는 한 협의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내부 갈등에 직면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는 노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노회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팀(특별위원회)을 임명하게 됩니다. 또는 노회가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는데 길잡이가 되고 산파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회에 속한 교회들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책임 성은 교회 헌법의 제 41 조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노회장은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여섯 개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가 노회의 일을 행하는 권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 교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 교회는 하나의 협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협의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다스 립니다. 교회 헌법은 그 권위를 본래적 권위(original authority)라고 일컫고 있습니다(제 27 조 a 항). 노회와 총회는 교회의 좀더 광범위한 연합의 표현들입니다. 노회와 총회는 각각 에게 할당된 영역에서 자체의 사역들을 감당하되, 지 교회와 마찬가지로의 동일한 권위 즉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서 일을 합니다. 교회 헌법은 이 권위를 위임된 권위 (delegated authority)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합들은 대의원들(대리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제 27 조 a 항). 그러나 노회는 한 지교회를 넘어서는 (즉 지교회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제 28 조 b 항), 총회는 노회들을 넘어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제 27 조 a 와 b 항).

아래는 여러분이 여러분 노회에 관하여 알아야 할 자세한 사항들입니다.

1. 각 교회는 한 사람의 목회자와 한 사람의 장로를 노회에 대표로 파송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두 사람의 장로들이 대표로 참석합니다(제 40 조 a 항). 신임 장로들은 노회 일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방청인으로 노회 회의들에 참석할 것을 권합니다.

2. 노회는 노회 회기를 위해서 자체의 의장을 선출합니다. 목회자들은 이 역할을 위해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연 이어서 두 차례 의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제 40 조 c 항). 노회는 또한 회록 서기와 회계를 한 사람씩 씁니다. 서기와 회계는 노회의 회기 중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의무들은 제 32 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3. 노회 회의들은 방문객들에게 공개되나, 그 회의가 “집행부 회의”일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대의원들이 아닌 직분자들도 “방청 발언권”(advisory voice)을 얻을 수 있습니다(제 40 조 a 항).

4. 지 교회와 마찬가지로, 노회는 적절하게 법인체로 등록해야(incorporated)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제대로 법인체로 등록되었습니까? (*Acts of Synod 1963*, p. 51; *Acts of Synod 1997*, pp. 616-620)

5. 지 교회의 협의회는 노회에 파송하는 협의회의 대표들에게 노회의 일에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는 적절한 신임장(자격 증명서)을 제공해야 합니다(제 34 조).

6. 노회는 심의체입니다(제 34 조). 노회원들은 마땅한 심의와 토론과 논의를 거친 뒤에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투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들은 자기들의 대표들에게 어떤 식으로 투표하라고 구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회 앞에 나와서 어떤 이슈에 대한 자기 협의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노회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협의회의 특권입니다.

7. 어떤 협의회가 노회에 한 사람의 장로를 대표로 파송할 수 없을 경우, 그 협의회는 그 대신에 안수 집사를 한 사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노회는 그 이유를 듣고 그 집사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8. 북미주 개혁 교단은 전도와 구제 분야들에 있어서의 교회의 소명을 대단히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회들에게 노회 산하 국내 선교 위원회와 구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 75 조).

9. 사역을 위해서 재능있는 젊은 노회원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회들은 젊은이들

을 보조하기 위한 장학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제 21 조). (신학생 발굴 및 지원을 말함)

10. 각 회기 사이의 노회 업무들은 노회의 상임 위원회(interim committee)에서 집행합니다.

11. 어떤 교회가 한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이적할 수 있습니다. 두 노회 가운데서 한 노회가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하며, 총회도 그 요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12. 정상적으로 지 교회들은 그들의 노회를 통해서 총회와 연결됩니다. 총회에 대한 건의안들과 상소와 의견 개진은 해당 노회가 지원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지를 노회가 신중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제 60 장 교회 시찰단에 대한 환영

일 년에 한 차례 노회가 노회 산하 교회들의 모든 협의회들을 시찰하도록 두 사람의 직분자들로 이루어진 사절단을 파송하는 것이 북미주 개혁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제 42 조). 다른 교회들을 대신해서 시찰 위원들은 노회 산하 각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갑니다. 시찰 위원들은 격려를 해주고 조언과 칭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내리신 복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교회 헌법은 시찰할 때 살펴야 할 다섯 가지 주요 분야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제 42 조 b 항). 그러나 총회들은 그 시찰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교회 시찰자들이 물어야 할 좀 더 폭넓은 질문들을 작성하였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자, 더 많은 질문들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오십 문항이 됩니다.

그 의도는 매우 고귀한 것이었지만, 현재 교회 시찰자들은 종종 그 심방을 제 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는 커다란 압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식적인 질의 사항들은 형식적인 답변들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교회 시찰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가 아닌 현 상태를 점검하는 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찰 자체는 훌륭한 제도이며 유지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시찰 위원들은 질문할 사항들에 유념하고 그 주제들을 요약해서 기억해야 하며, 어떤 질문들이 방문할 교회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고, 그 교회의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간략하게 자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심방의 초점은 그 교회와 그 교회 협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협의회는 시찰단과 함께 진행시킬 일정을 결정하고, 협의회 회원들은 갈등과 실망과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진보와 승리와 성장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협의회 회원들이 해주는 말에 대해서 경청하고, 마음 속으로 동감하고, 격려하고, 조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찰단은 의미 있는 기도 시간을 이끌게 됩니다. 이일은 그 지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시찰 행사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자신들이 시찰 위원들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중하게 준비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Acts of Synod 1936*, pp. 122-123).

다른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회는 두 사람의 목회자나 한 사람의 목회자와 한 사람의 장로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시찰 위원들이 “경험있고 자격을 갖춘 직분자들”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제 42조 a)

2. 총회는 반드시 일 년에 한 차례의 시찰을 하라고 말했습니다(제 42 조 a 항). 어떤 노회에서는 이 년에 한 차례 혹은 삼 년에 한 차례의 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cts of Synod 1975*, p. 17). 다가오는 시찰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회 회원들과 전 교인들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3. 협의회들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 시찰단을 청할 수 있습니다(제 42조 c)

4. 교회 시찰단은 행한 일에 대해서 노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 42 조 d 항).

제 61 장 총회의 일원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 장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장로들은 아마도 총회를 힘들지만,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총회는 일종의 심의 기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회 헌법 제 45-50 조는 총회의 구조와 기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4명의 대의원(총대) - 두 명의 목회자들과 두 명의 장로들-로 구성됩니다. 총대들은 자신들의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대표합니다(제 45 조). 총회는 일 년에 한 차례 모입니다(제 46 조 a 항). 각 총회는 다음 총회를 개최할 한 교회를 지명합니다 (제 46 조 a 항). 총회는 네 명의 임원들 - 의장(총회장), 부의장(부총회장), 제일 서기, 제이 서기를 선출합니다. 총회의 첫 회의를 연 다음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회는 회기를 개최한 다음 날에 열립니다. 대부분의 노회들은 장로 대위원들의 수입의 손실을 필요할 경우 보상해 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년 총회의 임원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위원회(a program committee - 총회 준비 위원회)가 개최될 총회의 일정들을 작성합니다.

프로그램 위원회는 또한 총회가 개최되기 상당 전에 대의원(총대) 명단을 참고해서 자문 위원들(advisory committees)을 임명하고 각 위원들에게 일정 자료를 할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의원들이 회의를 미리 준비하도록 촉진시킵니다. 교단의 총무(general secretary)와 각 사역 부서들의 실행 국장(executive director of ministries)과 재정 국장과 칼빈 대학 교와 칼빈 신학교의 학장들과 신학교 교수들은 총회의 직원들과 자문 위원들로 봉사합니다.

총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총회들은 교회들의 공통의 관심사들과 노회의 수준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제 28 조 b 항). 교회 헌법은 총회가 기본적으로 행하는 여섯 분야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들은 신조들의 채택, 교회 헌법 채택, 예배 형식들 채택, <시편 찬송가> (Psalter Hymnal) 채택, 예배 순서의 원칙들과 요소들에 대한 채택, 및 성경 역본들에 대한 채택 등등입니다(제 47 조).

총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단의 사역들을 감독합니다. 국내 선교부, 세계 선교부, The Back to God Hour(방송 선교국), 세계 구제 사역부(Christian Reformed World Relief), 칼빈 대학, 칼빈 신학교, CRC 출판국, 목회자 연금 기금, 미자립 교회를 위한 기금(Fund for Smaller Churches), 세계 출판 사역부(World Literature Ministries), 목회 사역부(인종 관계 사역부[Race Relations], 군목 및 교목부[Chaplaincy], 장애인 사역부[Disability Concerns], 목회자-교회 협력부, 학대 방지 사역부[Abuse Prevention]) 등등. 총회는 교단 이사회에 의해서 감독의 일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총회는 종종 총회의 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 위원들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연구 위원들은 2년이나 그 이상 걸려서 맡겨진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총회의 전반적인 책임들은 또한

몇 명의 상임 “봉사 위원들”[permanent “service committees”](이전에는 “상임 위원들”[standing committee]이라고 불렀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총회는 교회들이 교단 사역들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일정한 액수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들은 “ministry shares”(사역 분담금 - 이전에는 “쿼터”라고 불렀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총회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헌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각 회합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에게 맡겨진 교회적 권위를 행사한다. 협의회들의 권위는 본래적 권위이며, 큰 회합들의 권위는 위임된 권위이다.” 또 “노회는, 총회가 노회에 대해서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협의회에 대해서 갖는다”(제 27 조). (또한 제 53 장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총회의 일은 존중되어야 하며 인정되어야 합니다. 협의회나 노회나 총회와 같은 회합들의 권위를 침식하는 움직임들과 행위들은 교회의 연합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Acts of Synod 1991*, pp. 812-814).

총회 사무국은 지 교회의 협의회들을 위해서 도움과 조언을 즉시 줄 수 있는 자원임을 기억하십시오. General Secretary,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전화 (616) 224-0744. 이 메일, engelhad@crcna.org

(직분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총회 선언문들과 조처들에 의해 구속받는가?)

총회의 “공식 견해들”(deliverances)은 교회의 신앙 고백서들과 동일한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헌법 제 29 조는 총회의 공식 의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헌법에 상충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정해진 것이며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동으로 동의한 사항들이 멋대로 무시되고 소홀히 여겨진다면, 어떠한 교단도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직분자들이 어떠한 총회 결정들이나 조처들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여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회의 공식 견해들은 다양한 문제, 필요, 기회와 상황들 가운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총회가 어떤 신조상의 진술을 해석할 때, 총회적이며 목회적인 조언(advice)의 예보다는 당연히 더욱 더 준수해야 합니다. 언젠가 총회는 각 총회 결정은 그 자체의 “용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각 결정의 표현상의 언어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신조에 관한 선언문, 신앙에 대한 표현, 판결문들, 증언들(testimonies), 사역들과 조처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 목회적 조언, 단체 조직의 규율들 등등). 한 직분자의 불순종의 무게와 영향력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적 뉘앙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Acts of Synod 1975*, pp. 44-46).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자신의 직분들이 지니고 있는 책임과 특권들이 총회의 공식 결정들에 대하여 건전하게 평가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그 직분자들이 가르침과 글을 통해서 자기들의 견해 차이를 표현함으로써 불순응을 조장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여 왔습니다. 주일 성수와 관련한 총회의 공식 의견들에서 흥미로운 한 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81년 총회는 주일 성수에 대한 여섯 가지의 가이드라인들을 채택하였습니다 (*Acts of Synod 1881*, p. 19). 1926년 총회는 “1881년의 여섯 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조항들이 “고백적 문서들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서, 그러므로, 모든 임직자들과 교회원들에게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Acts of Synod 1926, pp. 191-192)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62 장 전 세계 교회의 일원

우리는 북미주 개혁 교회와 개혁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세계 전역의 다수의 기독 교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하나됨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즐거워 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 비전을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지도,
묶여 있지도,
제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전 세계에 두루
퍼져 있고 흩어져 있지만,
마음과 뜻 가운데서,
한 분이신 동일한 성령 가운데서,
믿음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제 27 조)

1987년 우리 교단은 에큐메니칼 헌장의 첫 번째 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헌장에는 신자들의 전 세계적인 한 몸됨에 대한 비전이 나타나 있으며, 다른 기독 교회들과의 교제 실천과 협력의 가능성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 49 조; *Acts of Synod 1985*, pp. 205, 237-241; *Acts of Synod 1987*, pp. 587-591; *Acts of Synod 1988*, pp. 562-564).

요한복음 17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 장,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21 주일에 근거해서, 그 헌장은 성경의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하나됨 그 자체는 진리의 표현이며 그리스도의 주신 한 가지 선물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연합)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됨의 이상적인 형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진지하게 추구하여 상호 갱신과 상호 용납의 하나됨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그 헌장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북미주 개혁 교단은 성경적인 에큐메니즘을 향한 몇 가지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 단계들이 전 세계의 복음화의 과제에 비추어 볼 때 온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단계들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 마땅한 단계들입니다.

성경적 에큐메니즘의 노력들은 많은 CRC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기독교 집단들과 협력 하면서 여러 곳에서 수 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자주 서로에 대한 선의와 존중 이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적 차원에서, 에큐메니칼한 노력은 주로 총회의 교단간 협력위원회(Interchurch Relations Committee, IRC)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수년 동안 이 위원회는 CRC의 신앙 고백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다른 교단들과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력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좀더 폭넓은 복음적 공동체들과 장래성 있는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교단간 협력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개혁파 교회들과의 뜻깊은 관계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교회들에 대해서 총회는 “교회적 교제권 안에 있는 교회들”(Churches in Ecclesiastical Fellowship)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과 더불어서 주요 회합들에 사절단을 상호 교환하고 강단 교류를 하며,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며, 공동의 보조를 취하며, 공통된 관심사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들은 미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있습니다.

북미주 개혁 교단은 협력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기독교 교단들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교단들은 “왕래하는 교제권 안에 있는 교회들”(Churches in Corresponding Fellowship)이라고 부릅니다(Acts of Synod 1993, pp. 408-410, 504).

또한 우리 교단은 몇 개의 에큐메니칼 단체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의 우산 아래서 다양한 교단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의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혁파 에큐메니칼 협의회(Reformed Ecumenical Council, REC)는 2050 Breton Rd. SE, Suite 102, Grand Rapids, MI 49546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전 세계의 수많은 개혁파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혁파 에큐메니칼 협의회는 개혁 신앙과 실천의 전파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 전국 복음주의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세계에 CRC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복음주의자 협회는 CRC의 의견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 캐나다에 있는 CRC 교회의 노력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캐나다의 CRC는 캐나다 기독교 개혁 교회 협의회(Council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es in Canada, CCRC)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삼십년 동안 그 협의회는 캐나다의 교회 단체들과 건설적인 접촉을 이룩하였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길은 그 협의회가 캐나다 복음주의 친목회(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EFC)에 한 멤버로 소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체에서 CRC 사람들은 지도적인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또한 캐나다 교회 협의회(Canada Council of Churches)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휴들을 통해서 캐나다에 있는 CRC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강력한 기독교적 증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 CCRC는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회가 맡고 있었던 일들은 CRC 이사회의 캐나다 사역국(Canadian Ministries Board of the CRC Board of Trustees)

가 말게 되었습니다.

CRC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좀더 명확한 이해에 이름으로써 하나됨을 방해하는 장애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 심한 박해를 거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극심한 빈곤 지역들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은 복음을 지키면서 적대적인 환경을 통과해 나왔습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즘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께서 놀라우리만큼 다양한 환경들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과, 전 세계에 있는 동료 신자들과의 하나됨을 점차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준다는 사실과, 우리가 우리의 지 교회들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보배들에 대한 인식과 감사가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CCRC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범 교회적 인권 위원회(Interchurch Committee on Human Rights in Latin America), 원주민 권리 연맹(Aboriginal Rights Coalition), 난민 위원회(Committee on Refuges)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왔던 봉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제 63 장 기독교 학교에 대한 지원

CRC는 언제나 주간 크리스천 스쿨을 통한 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주1) 차 세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똑같이 헌신하도록 배려해 놓았습니다. “협의회는 해당 교회원들에게 좋은 크리스천 스쿨들을 세우고 유지하도록 부지런히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 헌법, 제 71 조). 총회는 해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끈땀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에 헌신해야 하는 종교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결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교육은 지혜의 시작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 가운데서 전인(全人)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 세례는 언약의 징표이며, 기독교 교육은 언약적 삶의 일부입니다.
- 삶에는 성숙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의 임금이신 주님을 존송합니다. 그 왕께서 삶의 모든 영역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Acts of Synod 1898*, p. 38; *Acts of Synod 1951*, p. 44; *Acts of Synod 1955*, pp. 193-200; 또한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다>, 제 50 항을 참조하십시오.)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1. 전체 교인들 앞에 주간 크리스천 스쿨을 통한 교육의 문제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시오. 교회 헌법은 “격려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원들에게 기독교 교육은 영적 지도자들로서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것임을 알려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 비전을 표현할 때 장로들은 그 비전을 지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크리스천 스쿨에 보낼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장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장로들의 지원과 지지를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2. 한 사람의 장로로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 스쿨 교사들을 격려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과 안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크리스천 스쿨의 이사회 일원들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벅찬 과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때때로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들을 방문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리스천 스쿨에서 개최하는 행사들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공립 학교들에서 일하는 크리스천 교사들과 사무원들에게 그들의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증인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십시오.

3. 협의회로서 수업료를 낼만한 재정이 충분치 않은 부모들을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금을 여러분의 교회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주

1. 크리스천 스쿨에 대한 유익한 조언과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주소에 문의하십시오.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 3350 East Paris Ave., PO Box 8709, Grand Rapids, MI 49508

제 64 장

교회 밖 단체들(Para-Church Organizations)과의 관계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종교 생활은 수십 개의 종교 단체들과 자선 단체들, 지지 단체들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각자 자기들의 활동을 하기 위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 교회의 협의회들은 이러한 단체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과 때때로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협의회들이 책임 있게 그리고 잘 알고서 어떤 단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있는 관찰 사항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 총회들은 정기적으로 교단 자체의 사역들을 각 교회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교단의 사역들에는 전도, 선교, 구제, 교육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사역부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사역분담금”(ministry share)에 대한 지원 만으로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매년 총회는 *Acts of Synod*에 이러한 사역들을 명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계들에게 리스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러한 명목들을 위해서 “한 차례 이상의 현금”을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청소년 명목을 위한 특별 항목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2. 총회는 또한 수십 개의 비 교단 단체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회들에게 그들에 대한 지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명들도 자선 기관들, 교육 기관들, 기타 기관들이라는 세 가지 표제 아래 *Acts of Synod*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위해서는 별도의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등재된 단체들은 자체의 사역들과 재정 사용과 현황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총회의 이사회는 매년 마다 그 단체들을 리뷰합니다. 40 개 이상의 단체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 교회들은 선택의 범위가 많습니다. 이상의 단체들 가운데서 어느 단체에서도 여러분의 현금을 선용할 것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총회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3. 총회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분야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단체의 사명(선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단체들을 후원하고 싶다면, 그 단체들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단체들에게 매년 활동한 보고서와 예산 계획서와 재정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여러분이 후원한 금액의 어느 부분이 광고와 행정과 실제 활동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4. 여러분에게는 아마도 지역의 사업들에 대한 협조 부탁이 들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의회 회원들은 이러한 단체들의 가치들과 활동 내역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

는 분야의 문제와 필요에 이 단체들이 부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명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후원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이 없이는 북미 주 대륙 전역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아주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후원 기금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과 교단과 관련된 대의 명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 순위로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우리는 이 깨어지고 곤핍한 세상 가운데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제를 가져다 주는 커다란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시에 따르되, 여러분의 머리의 명령도 따르십시오. 그 단체들에 대한 후원하고 싶은 심정이 그 단체의 건실성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심으로 그 일을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선한 일에 후하게 베푸는 교회들은 예산을 맞추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말도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기원하며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전 12:12).

여러분이 한 사람의 장로로서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책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라는 대답을 하고 싶지는 않군요.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 양 무리 가운데서 목자장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전혀 끝이 없을 것 같은 많은 고통들이 뒤따릅니다. 많은 경우에서 여러분은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도 하겠지만, 복잡 다단한 교인들의 실상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 책에 쓰여진 내용들로부터 어떤 안내 지침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대 동안 많은 장로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많은 교회 관련 문헌들과 용례들은 그들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회적인 보살핌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도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고 도서 목록

- Arnold, Harry G. *Discipline in the Church* (number 14 in the series *In His Service*),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89).
- Berghoef, Gerard, and Lester DeKoster, *The Elder's Handbook*. Grand Rapids, Mich.: Christian Library Press, 1979.
- Church Order/Rules for Synodical Procedure*.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7.
- De Jong, James A. *Into His Presence*.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85.
- De Jong, Peter Y. *Taking Heed of the Flock*. Grand Rapids, Mich.: Baker, 1955.
- De Koning, Neil. *Guiding the Faith Journey: A Map For Spiritual Leaders*.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6.
- De Ridder, Richard R. *Organization of the Church; The Place and Function of Members; The Special Offices of the Church; Family Visitation* (numbers 2, 3, 4, and 8 in the series *In His Service*).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 Foster, Richard. *Celebration of Discipline: The Path to Spiritual Growth*. New York: Harper and Row, 1978.
- Guenther, Margaret. *Holy Listening: The Art of Spiritual Direction*. Boston: Cowley Publishing, 1992.
- Kooistra, Remkes. *Straight Talk: A Fresh Look at 1 Timothy*.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6.
- Postema, Don. *Space for God: Study and Practice of Spirituality and Prayer*. 2nd ed.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7.
- Tamminga, Louis. *Conflict in the Church* (number 12 in the series *In His Service*).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 _____. *A New Pastor for Greenville*. Grand Rapids, Mich.: CRC Pastor-Church Relations, 1988.
- Vander Griend, Alvin J. *Discover Your Gifts*. 2nd ed.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97.